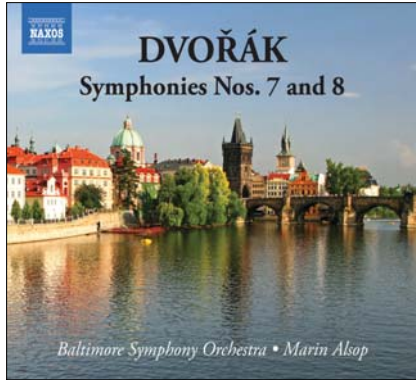


Naxos new rel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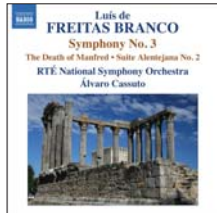
8.57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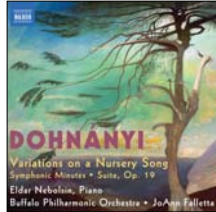
드보르작:
교향곡 7번, 8번
마린 알습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8.559671
코릴리아노:
바이올린협주곡 '레드 바이올린', 판타스마고리아
미카엘 루드비히(vn)
조안 팔레타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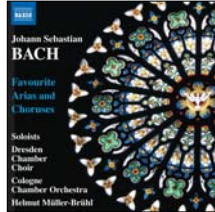
8.572370
프레이타스 브랑코:
교향곡 3번, 알렌테지나 모음곡 2번
알바로 카수토
RTE 국립 교향악단



8.572303
도흐나니:
동요주제의 변주곡, 관현악 모음곡, 교향악의 순간
엘다 네볼신(pf)
조안 팔레타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8.572284
보테시니:
로시니 판타지아, 두 대의 더블베이스를 위한 협주곡 외
토마스 마틴,
티모시 콤(db)
크리스토퍼 울드파더(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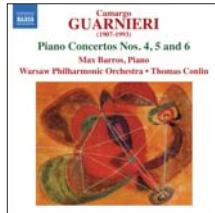
8.572541
JS 바흐:
애청 아리아와 합창곡들
여러 가수들
드레스덴 실내합창단
헬무트 뮐러 브렐
필터 챔버 오케스트라



8.572155
마르케비치:
위대한 로렌초, 시편
루시 셸트(sop)
카멜라 카로리나
크리스토퍼 린드 지
아른헬 필하모닉



8.570974
비외탕:
판타지아 아파소나타, 발라드와 폴로네이즈 외
미샤 케일린(vn)
앤드류 모그렐라
슬로박 라디오 심포니



8.557667
과르니에리:
피아노협주곡 4, 5, 6번
막스 바로스(pf)
토마스 쿨린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8.572392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8번

바실리 페트렌코 /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큰 화제 속에 진행 중인 바실리 페트렌코와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사이클의 세 번째 출시작. 전쟁교향곡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에 해당하는 교향곡 8번에 도전하였다. 2차 대전이 절정으로 치달던 무렵인 1943년에 완성된 이 교향곡은 거칠고 공격적인 패시지들과 암울한 분위기를 통해 전쟁의 공포와 참상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낸 강렬한 작품이다.

스즈키 에버그린스 시리즈 - 바이올린 교본의 대명사 스즈키 교습법 최초 이수자가 연주하는 스즈키 교습법의 여러 음악들



8.572378
타카코 니시자키가 연주하는 스즈키 교습법 Vol.1
타카코 니시자키(vn)
테렌스 데니스(pf)
사라 왓킨스(pf)



8.572379
타카코 니시자키가 연주하는 스즈키 교습법 Vol.2
타카코 니시자키(vn)
테렌스 데니스(pf) 외
여러 음악가들



8.572380
타카코 니시자키가 연주하는 스즈키 교습법 Vol.3
타카코 니시자키(vn)
테렌스 데니스(pf)
피터 웰스
뉴질랜드 청소년 오케스트라



8.572381
타카코 니시자키가 연주하는 스즈키 교습법 Vol.4
타카코 니시자키(vn)
테렌스 데니스(pf)
피터 웰스
뉴질랜드 청소년 오케스트라



8.572382
타카코 니시자키가 연주하는 스즈키 교습법 Vol.5
타카코 니시자키(vn)
테렌스 데니스(pf)
피터 웰스
뉴질랜드 청소년 오케스트라



8.572383
타카코 니시자키가 연주하는 스즈키 교습법 Vol.6
타카코 니시자키(vn)
테렌스 데니스(pf)



8.572494
타카코 니시자키가 연주하는 스즈키 교습법 Vol.7
타카코 니시자키(vn)
테렌스 데니스(pf)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43호 | May 2010



*Hot Issue

요제프 수크와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의 만남

*Blu-ray Hot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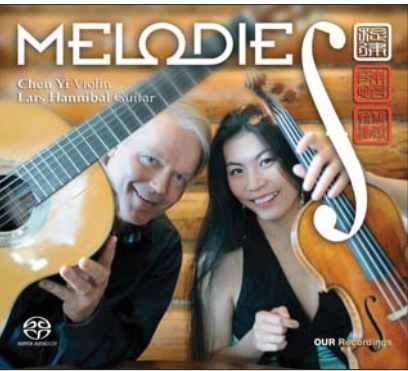
특별한 가격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Cover Story

화제의 베스트 음반 멜로디스(Melodies)

바이올린과 기타로 연주하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들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 사티의 짐노페디 1-3번,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과 아름다운 로즈마리, 글록의 정령들의 춤,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헨델의 라르고와 같은 애청소품들은 물론, 마리아 테레사의 시실리안느, 랄로의 안단테와 같은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작품들이 여러분들의 휴식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6.220602
멜로디스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율들)
첸 이 violin
라스 한니발 guitar

2004년에 제작한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간 아내인 리코더연주자 미칼라 페트리와 함께 여러 음반을 만들어왔던 기타리스트 라스 한니발은 이번에는 바이올린으로 파트너를 이 매력적인 음반을 완성하였다. 어린 시절 한니발은 비틀즈와 밥 딜런의 영향으로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으며, 2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정식으로 클래식 기타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바이올리니스트 킴 스외그렌과 더불어 듀오 콘체르탄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고, 현재의 아내인 미칼라 페트리와도 활발한 이중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 음반에서 한니발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기타제작자인 이그나시오 플레타가 1961년에 제작한 악기를 사용하였다.

[수록곡]

01. 타이스의 명상곡 - 마스네 / 02. 사랑의 슬픔 - 크라이슬러 / 03. 라르고 - 헨델 / 04. 아베 마리아 - 슈베르트
05. 아베 베를 코르푸스 - 모차르트 / 06. 시실리엔느 - 마리아 테레사 폰 파라디스 / 07. 스페인교향곡 중 안단테 - 랄로
08. 카르멘 3막 전주곡 - 비제 / 09. 라르게토 - 헨델 / 10. 목동의 노래 - 그리고 / 11. 정령들의 춤 - 글록
12. 자장가 - 그리고 / 13. 칸타빌레 - 파가니니 / 14. 아름다운 로즈마리 - 크라이슬러 15-17. 짐노페디 1,2,3 - 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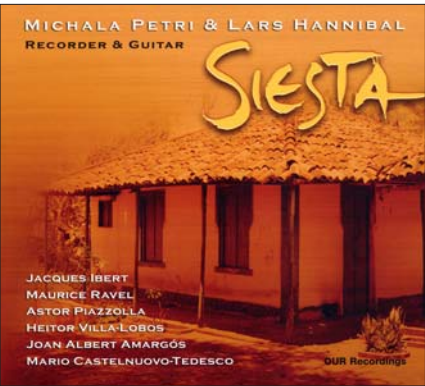
6.220600 [Hybrids-SACD]
Dialogue (동양과 서양 피리들의 만남)
미칼라 페트리(리코더)
첸 유에(중국 전통 피리)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피리 연주자들의 만남.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인 리코더 연주자 미칼라 페트리와 중국의 전통피리 연주자인 첸 유에가 덴마크와 중국의 젊은 작곡가들이 동양과 서양의 피리를 위해 완성한 개성적인 창작곡들을 나누어 연주하였다. 중국 전통 피리인 디치(笛子)와 시아오(簫)와 여러 음역의 리코더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의 조화가 흥미진진하다.



8.226901
Spirits (중국 대나무 피리로 연주하는 민요와 클래식)
첸 유엔(중국 전통 피리)
라스 한니발(기타)

중국의 전통 대나무 피리인 시아오(Xiao)는 우리의 대금과 거의 유사한 소리를 들려준다. 6곡의 중국 전통 민요를 비롯, 영국, 스페인, 헝가리, 일본의 민속선율, 그리고 G선상의 아리아, 비발디 사계 중이 겨울 2악장, 여름의 마지막 장미, 집시의 달과 같은 귀에 익은 선율들이 이 자연 친화적인 악기의 독특한 사운드를 통해 새로운 느낌으로 다시 태어났다.



8.226900
Siesta (리코더와 기타로 연주한 라틴 음악들)
마칼라 페트리(리코더)
라스 한니발(기타)

세계적인 리코더 연주자 미칼라 페트리와 기타리스트 라스 한니발이 들려주는 남국의 정열.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의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소나티나, 빌라로보스의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라벨의 하바네라 풍의 소품, 이베르의 막간(Entracte) 등등 라틴 계열 작곡가들의 이국적인 작품들을 리코더와 기타의 청명한 울림으로 표현해내었다. 본 음반은 페트리-한니발 부부가 설립한 독립레이블인 OUR Recordings의 출범을 알리는 뜻 깊은 음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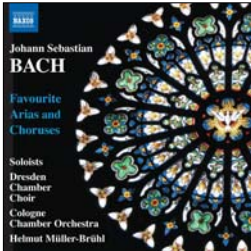
8.226905
미칼라 페트리 50세 생일 축하 콘서트
미칼라 페트리(리코더)
크레머라타 발티카

알비노니의 오보에협주곡 Op.9-2의 리코더편곡, 비발디의 리코더협주곡 RV443과 같은 정통 레퍼토리와 더불어 중국 전통음악에 기반을 둔 첸이의 '옛 중국의 아름다움', 카자흐의 젊은 작곡가 바실리에프의 'Valere Lubere', 그리고 영화음악으로 유명한 니노 로타의 정통 클래식 작품인 현을 위한 협주곡 등이 연주되었다. '해피 버스데이'의 선율을 풀카, 왈츠, 탱고, 차르다슈 등으로 재미있게 변형시킨 하이브리드의 변주곡이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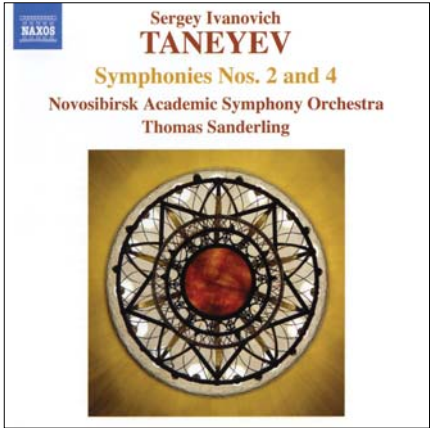
8.660275-76 [2CDs]
로시니:
오텔로
마이클 스피어, 제시카 프랫 외/ 안토니오 폴리아니/ 비르투 오지 브루넬시

오텔로는 베르디 최만년의 걸작 오페라로 유명하지만, 그보다 70여년 앞서서 로시니도 같은 소재로 오페라를 완성하였다. 하지만 이 오페라의 대본은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아닌 베리오 디 살사의 희곡에 기초한 것이다. 19세기 당시 데스데모나가 부르는 버드나무의 노래와 곤돌라사공의 노래가 담긴 3막은 특히 큰 인기를 누렸다. 본 음반은 2008년 7월 독일 빌트바트의 로시니 페스티벌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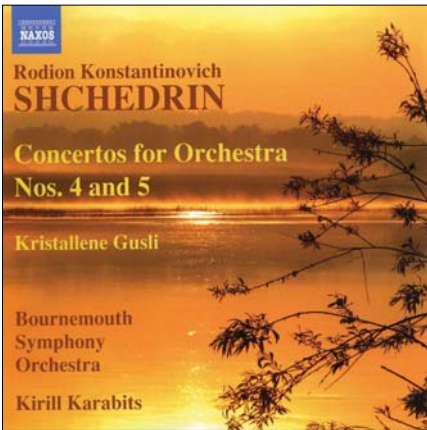
8.572541
JS 바흐:
애청 아리아와 합창곡들
여러 가수들/ 드레스덴 실내합창단/ 헬무트 뮐러 브릴/ 쾰른 챔버 오케스트라

바흐는 작곡 기회가 없었던 오페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음악장르에 걸쳐서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과시하였다. 그의 종교성악곡들의 아리아들은 세속적인 바로크 성악곡들에 못지않은 표현 잠재력을 완벽하게 드러낸다. 본 음반에는 미사 B단조와 마태수난곡 그리고 그의 몇몇 칸타타들에서 발췌한 대표 아리아들과 합창곡들을 통해 성악 작곡가로서의 바흐의 매력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8.572067
타네예프:
교향곡 2,4번
토마스 잔데링/ 노보시비르스크 아카데미 심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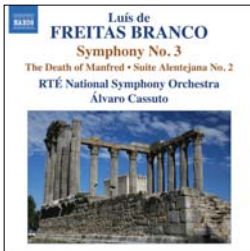
타네예프는 차이코프스키와 라흐마니노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다. 그가 모스크바 음악원 재학 중에 썼던 교향곡 2번은 스승 차이코프스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음에도 미완성상태로 남겨졌던 작품이다. 여기에는 1977년 블라디미르 볼록이 완성한 형태의 버전을 수록하였다. 당당한 스케일의 교향곡 4번은 작곡가의 관현악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걸작이다.



8.572405
슈체드린: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4,5번
키릴 카라비츠/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발레 '카르네 모음곡'으로 유명한 러시아 작곡가 로디온 슈체드린. 관현악협주곡 4,5번은 작곡가가 어린 시절 러시아 초원에서 경험했던 정겨운 선율들을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표현한 작품들이다. 세계 최초 레코딩인 본 음반은 작곡가가 직접 녹음세션에 참여함으로써 권위를 드높였다. 본머스 심포니의 새로운 수장인 젊은 기대주 키릴 카라비츠의 녹소스 데뷔 레코딩



8.559671
코릴리아노:
바이올린협주곡 '레드 바이올린', 판타스마고리아
미카엘 루드비히(vn)/ 조안 팔레타/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코릴리아노는 영화 '레드 바이올린'에 삽입했던 자신의 샤콘느를 토대로 4악장 구성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완성하였다. 작곡가 자신이 열정적인 로맨틱 에세이라고 표현한 샤콘느 외에도 열기에 찬 스케르초, 감성적인 안단테, 신나게 내달리는 피날레로 구성되었다. '판타스마고리아'는 자신의 오페라 '베르사이유의 유령'에서 소재를 얻은 작품으로, 모차르트, 로시니, 바그너 등의 선율이 곳곳에 등장한다.



8.572370
프레타스 브랑코:
교향곡 3번, 알렌테자나 모음곡 2번
알바로 카수토/ RTE 국립 교향악단
포르투갈 작곡가 프레타스 브랑코(1890-1955)의 관현악 시리즈의 3번째 음반. 1944년에 작곡된 교향곡 3번은 빛나는 오케스트라의 소노리티를 통해 로맨틱한 정서를 표현해낸 당당한 스케일의 작품이다. 격정을 담은 교향시 '만프레드의 죽음'과 포르투갈 남부 알렌테조 지방의 풍광과 향토민들의 일상사를 그린 알렌테자나 모음곡 2번을 함께 수록하였다.



8.572155
마르케비치:
위대한 로렌초, 시편 루시 셸튼(sop)/ 카펠라 카롤리나/ 크리스토퍼 린든 지/ 아르헨 필하모닉

러시아의 가장 지휘자 이고르 마르케비치는 젊어서 작곡가로도 상당수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소프라노와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위한 시편은 그가 불과 21살 때 작곡한 작품이며,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위대한 지배자였던 로렌초 디 메디치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소프라노와 관현악을 위한 콘체르탄테 스타일의 작품인 '위대한 로렌초'는 그가 작곡가로서 마지막 남긴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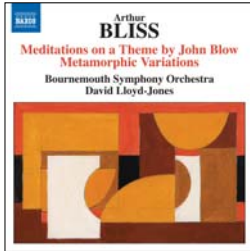
8.570974
비외탕:
판타지아 아파소나타, 발라드와 폴로네이즈 외 미샤 케일린(vn)/ 앤드류 모그렐라/ 슬로박 라디오 심포니

프랑크-플레미시 바이올린 계보의 거두였던 앙리 비외탕은 자신의 악기인 바이올린을 위해 화려한 쇼피스 용 작품들을 다수 완성하였다. 본 음반에는 그가 러시아 체류시기에 완성했던 장식적이면서도 기교적인 판타지아 아파소나타, 위엄어린 발라드와 폴로네이즈, 성조기와 앙키두들과 같은 미국 선율들을 차용한 미국을 향한 인사 등등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개성적인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8.557667
파르니에리:
피아노협주곡 4,5,6번
막스 바로스(pf)/ 토마스 콘리/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파르니에리(1907-93)는 빌라르보스 이후 가장 중요한 브라질 출신 작곡가로 손꼽힌다. 40여년에 걸쳐 완성된 6편의 피아노협주곡은 작곡가의 음악스타일의 변화상을 잘 보여준다. 5, 6번 협주곡은 초기 협주곡들의 민족음악적인 성격과 구분되는 아방가르드적인 특징을 보다 보여주는 편이나, 실재음악과 같이 아담한 분위기의 6번 협주곡은 다시 초기협주곡들과 유사한 스타일로 회귀하였다.



8.572316
블리스:
블로우 주제의 명상곡, 메타모르픽 바리에이션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다양한 종류의 타악기를 포함한 대편성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인 메타모르픽 변주곡은 블리스가 그의 인생말년에 완성한 대작으로 힘과 열정, 그리고 광포함이 정교함과 부드러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수작이다. 17세기 작곡가인 존 블로우의 테마에 의해 완성된 명상곡은 1차대전 당시 희생된 자신의 형제를 위한 애도적인 분위기로 가득 채워진 작품이다.



8.559385
호바네스:
교향곡 7번, 14번, 23번
케이스 브라이언/ 트리니티 음악대학 윈드 오케스트라
호바네스가 남긴 70여편의 교향곡들 중에서 관악양상부를 위한 세 편의 교향곡을 담았다. 7번 '낭가 파르바트'는 제목 그대로 카시미르 지방에 위치한 히말라야의 준봉의 거친 위용을 묘사한 작품. 14번 '아라라트'는 노아의 방주가 안착했다는 산의 이름 아래서 화산, 지진, 눈사태의 공포를 표현한 작품. 23번 '아니'는 지금은 폐허만 남은 아르메니아의 옛 도시에 존재했었다는 1001개의 사원의 종소리를 표현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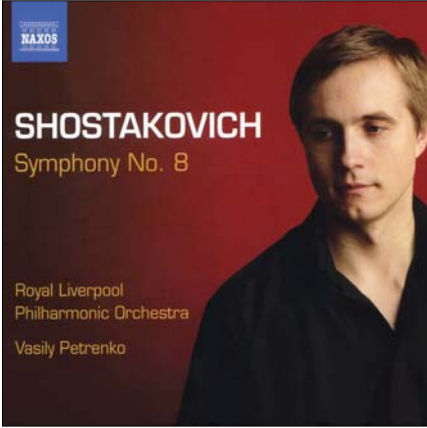
8.570003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3번, 현악사중주 Op.0 외 뉴질랜드 현악사중주단
뉴질랜드 스트링 콰텟의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시리즈의 세 번째 음반. 멘델스존이 14세 때 완성한 최초의 현악사중주인 Op.0과 작곡가 본인이 가장 아꼈던 작품이자 상냥한 분위기의 미뉴에트 악장이 매력적인 현악사중주 3번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멜랑콜리한 분위기로 채워진 그의 최후기 작품들인 주제와 변주 Op.81-1과 스케르초 Op.81-2를 함께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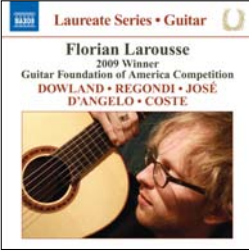
8.559380
산필드:
6개의 영국민요, 페카딜로에스, 단편들
제임스 토코, 폴 산필드(pf)/ 에후다 하나니(vc)/ 알렉산더 피터 스테인(c)
산필드의 음악세계는 대중성과 진지함, 친숙함과 독창성, 가벼움과 깊이 등의 상반된 느낌들이 조화로우며 담고 있다. 6개의 영국 민요는 자클린 뒤프레를 추모하는 작품이며, '작은 과오'(Peccadilloes)는 랙, 부기 등의 현대춤들로 바로크 춤곡 모음곡 형태로 만든 작품이며, '단편들'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의 음악들을 소재로 만든 재치 있는 클라리넷 트리오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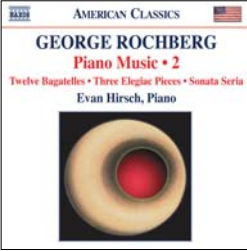
8.570943
베토벤:
클라리넷, 피아노, 첼로를 위한 삼중주 4,8번
입 하우스만(cl)/ 마리아 클리겔(vc)/ 니나 티호만(pf)
클라리넷과 첼로,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Op.11은 바이올린의 코믹 오페라 '해적'의 선율을 빌려왔던 까닭에 '유행가'(Gassenhauer)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클라리넷 파트를 바이올린으로 대체하여 연주하기도 하지만, 클라리넷 특유의 소노리티가 더해졌을 때 더욱 매력적인 작품이다. 같은 악기 편성을 위한 트리오 Op.38은 1803년에 출판된 작품으로, 자신의 7중주 Op.20을 편곡한 것이다.



8.572392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8번
바실리 페트렌코/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큰 화제 속에 진행 중인 바실리 페트렌코와 로알 리버풀 필하모니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사이클의 세 번째 출시작. 전쟁교향곡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에 해당하는 교향곡 8번에 도전하였다. 2차 대전이 절정으로 치달던 무렵인 1943년에 완성된 이 교향곡은 거칠고 공격적인 패시지들과 암울한 분위기를 통해 전쟁의 공포와 참상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낸 강렬한 작품이다.



8.572565
플로리앙 라루스 기타 리사이틀
다울랜드, 레온디, 호세, 단젤로, 코스트의 기타 독주곡들
2009년 미국 기타 재단(GFA) 국제콩쿠르의 우승자인 프랑스의 기타리스트 플로리앙 라루스의 낙소스 데뷔 레코딩. 르네상스시대 다울랜드의 류트 작품들에서부터 19세기 기타 거장들인 레온디와 코스트의 로맨틱한 소품들, 안토니오 호세의 포스트로맨틱한 분위기의 소나타, 그리고 20세기의 진보적인 스타일의 작품인 단젤로의 작품 등으로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8.559632
록버그:
12개의 바가텔, 3개의 애상적 소품들, 소나타 세리아
에반 허슈(pf)
조지 록버그(1918-2005)의 작품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르는 피아노독주곡들이다. 12개의 바가텔은 그의 주요 초기작 중 하나로, 간결한 구성 속에 서정성을 담은 작품들이다. 3개의 애상적 소품들은 타이틀 그대로 감성적인 분위기로 점철된 작품이며, 1948년 작곡되어 무려 50년 뒤에 출판된 피아노 세리아는 역동적인 에너지로 충만한 작품이다.



8.570744
몬살바헤:
피아노작품집
조르디 마소(pf)/ 프란체스 귀엘 / 그라노예스 챔버 오케스트라
자비에르 몬살바헤는 20세기 카탈루냐가 배출한 주요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감각적인 리듬과 재즈에 몰입했으며, 라벨과 미요의 색채적인 음악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았다. 실내악적인 능밀함이 인상적인 피아노와 현을 위한 작품인 Recondita Armonia를 비롯하여 로맨틱한 선율미가 돋보이는 매력적인 피아노 소품들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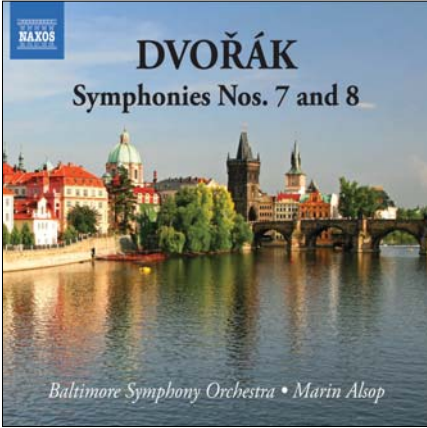
8.570163-64 [2CDs]
The Latin American Guitar
Various Artists
빌라-로보스의 기타협주곡과 브라질 유행가 모음곡,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와 탱고의 역사, 푸홀의 엘레지아, 브루워의 자장가, 라우로의 조로포, 폰세의 3개의 멕시코 유행가, 카르두주의 밀롱가, 모스카르디니의 착각의 밀롱가, 블라스케스의 날으는 연의 꿈, 모렐의 브라질 춤곡 등등 라틴 아메리카 작곡가들의 개성만점의 기타 작품들을 2장의 CD에 빼곡히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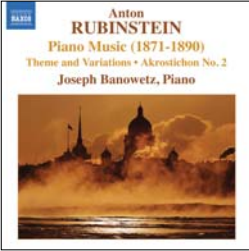
8.572577
팔로모:
돌시네아
여러 가수들/ 미구엘 앙헬 고메스 마르티네스/ 베를린 도이치 오퍼
풍부한 리듬과 아름다운 서정을 담은 파올로모의 칸타타-판타지인 '돌시네아'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카를로스 무르시아노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이다. 괴짜기사 돈키호테와 그의 부하 산초 판차는 각가 환상의 여인인 돌시네아와 헌신적인 테레사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다. 파올로모는 대단히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각 장면의 분위기를 뚜렷이 대비시켰다.



8.660284-85 [2CDs]
로시니:
알제리의 이탈리아여인 로렌초 레가초, 브루노 데 시모네 외/ 알베르토 체다/ 비르투오지 브루넬리스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은 로시니가 21살 되던 해인 1813년에 불과 18일 만에 완성된 작품이다. 오페라의 배경과 음악은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오리엔탈 취향을 충실히 반영한다. 본 음반은 2008년 빌트바트 로시니 페스티벌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정상급 바리톤 로렌초 레가초와 최고의 바스 부포 브루노 데 시모네가 로시니 오페라의 진수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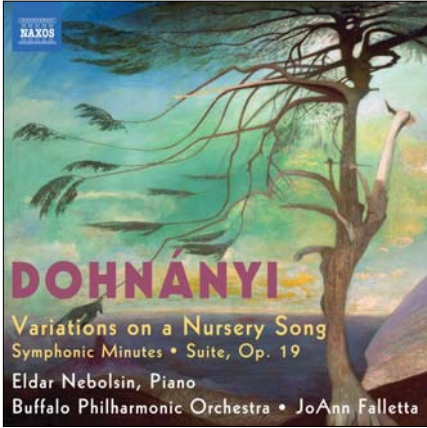
8.572112
드보르작:
교향곡 7번, 8번
마린 알습/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호평을 받았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에 이어서 마린 알습과 볼티모어 심포니의 두 번째 드보르작 교향곡 음반이 등장하였다. 교향곡 7번과 8번은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낭만주의의 틀을 통해 표현해낸 걸작들로, 특히 작곡가 특유의 빼어난 선율감각이 두드러지는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각각 2009년 3월과 2008년 1월 볼티모어 메이어호프 심포니 홀에서의 콘서트 실황 녹음들이다.



8.570941
루빈시타인:
주제와 변주, 아크로스티혼 2번
요제프 바노베츠(pf)
안톤 루빈시타인은 19세기 러시아 음악의 산파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리스트의 제자로 독일 낭만음악을 적극 추종했으며, 뛰어난 피아니스트로서도 맹활약했다. 방대한 분량의 작품을 남겼음에도 'f조의 멜로디' 정도만이 자주 연주되는 편인데, 슈만의 심포닉 에튀드의 영향을 받은 대작인 주제와 변주, 살롱 풍의 우아한 피아노 소품집인 Akrostichon (언어 유희)는 이 작곡가의 재능이 범상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8.572313
그라나도스:
스페인 춤곡 1-12번, 발렌시아 호타에 의한 즉흥곡
더글라스 리바(pf)
독일 잡수합의 공격으로 대서양에서 생을 마감했던 그라나도스는 알베니스와 더불어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손꼽힌다. 12개의 스페인 춤곡은 스페인 각 지역의 독특한 민속음악들을 소재로 완성한 피아노작품집으로 당시 생상, 그리고, 마스네와 같은 작곡가들로부터 극찬을 이끌어냈었다. 함께 수록된 발렌시아 호타에 의한 즉흥곡은 작곡가 자신의 피아노를 연주를 토대로 한 것이다.



8.572303
도흐나니:
동요주제의 변주곡, 관현악모음곡, 교향악의 순간
엘다 네볼신(pf)/ 조안 팔레타/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의 할아버지인 에르뇌 폰 도흐나니는 헝가리 출신임에도 독일 후기낭만주의의 전통을 충실히 좇았던 작곡가다. 동요주제 변주곡은 모차르트의 변주곡으로도 유명한 '작은별'의 선율을 토대로 완성한 협주곡 풍 변주곡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변주곡에 비길만한 장대한 스케일의 걸작이다. 교향악의 순간과 모음곡에서도 이 작곡가의 로맨틱한 서정이 잘 드러난다.



8.572284
보테시니:
로시니 판타지아, 두 대의 더블베이스를 위한 협주곡 외
토마스 마틴, 티모시 콕(db)/ 크리스토퍼 올드파더(pf)
더블베이스의 파가니니'라 불리던 보테시니는 이 문중한 저음악기를 독주악기로 변모시켰던 장본인이다. 귀에 익은 타란텔라로 시작되는 로시니 주제의 판타지아, 랍소디 풍의 'Passioni amorose', 대단히 기교적인 두 대의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피아노반주 없이 두 저음악기의 묵직한 대화로 구성된 그랑 듀에도 2번 등등 그가 학창시절 완성했던 두 대의 더블베이스를 위한 작품들을 담았다.

스즈키 에버그린스
(Suzuki Evergreens)
시리즈

바이올린 교본의 대명사
스즈키 교습법
최초 이수자가 연주하는
스즈키 교습법의 여러 음악들

낙소스의 창립자 클라우스 헤이만의 아내인 타카코 니시자키는 1964년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이작 펠만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던 일본의 중견 바이올리니스트이다. 그의 아버지인 신지 니시자키는 신이치 스즈키와 함께 스즈키교습법의 공동 개발자였으며, 타카코는 이 교습법을 최초로 이수했던 학생이었다. 전체 7장의 CD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스즈키 교습법에 수록된 각종 작품들을 타카코 니시자키의 연주로 수록하였으며, 일부 작품은 교습법 내의 편곡과 오리지널 버전을 함께 수록하였다.



8.572378
타카코 니시자키가 연주하는
스즈키 교습법 Vol.1
타카코 니시자키(vn)/ 테렌스 데니스(pf)
스즈키- 작은별 변주곡, 알레그로, 2개의 무궁동, 알레그레토, 안단티노, 에튀드, 옛날 옛날에, 바흐 - 3개의 미뉴엣, 뤼제트, 슈만 - 즐거운 농부, 고색 - 가보트, 헨델 - 보아라 웅사, 부레, 베버 - 사냥꾼의 합창, 브람스 - 왈츠, 파가니니 - 마녀의 춤, 토마 - 미농 중의 가보트, 윌리 - 가보트, 베토벤 - 미뉴엣, 보케리니 - 미뉴엣



8.572379
타카코 니시자키가 연주하는
스즈키 교습법 Vol.2
타카코 니시자키(vn)/ 테렌스 데니스(pf) 외 여러 음악가들
마르티니 - 가보트, 바흐 - 미뉴엣(오리지널 BWV Anh 114, 115 포함), 가보트 (오리지널 BWV822 중의 가보트 포함), 드보르작 - 유모레스크 (+ 오리지널 버전), 베크 - 가보트, 바흐 - 가보트 1,2 (오리지널 BWV1068 중의 가보트 1,2 포함), 부레 (오리지널 BWV1009 중의 부레 포함)



8.572380
타카코 니시자키가 연주하는
스즈키 교습법 Vol.3
타카코 니시자키(vn)/ 테렌스 데니스(pf) 피터 월스/ 뉴질랜드 청소년 오케스트라
자이츠 - 바이올린협주곡 2번, 바이올린협주곡 5번, 슈베르트 - 자장가 (바이올린편곡버전 + 오리지널 가곡버전), 브람스 - 자장가 (바이올린편곡버전 + 오리지널 가곡버전), 비발디 - 바이올린협주곡 RV356 중 1,3악장 (피아노반주버전 + 오리지널버전), 바흐 -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1043 중 1악장 (바이올린 2 버전 + 오리지널버전)



8.572381
타카코 니시자키가 연주하는
스즈키 교습법 Vol.4
타카코 니시자키(vn)/ 테렌스 데니스(pf)
바흐 - 가보트 1,2 (오리지널 첼로모음곡 BWV1012 중 가보트 1,2 포함), 비발디 - 바이올린협주곡 RV356 중 라르고 (피아노반주버전 + 오리지널버전), 바이올린협주곡 RV317 (피아노반주버전 + 오리지널버전), 바흐 -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1043 중 1악장 (바이올린 1 버전 + 오리지널버전), 베라치니 - 소나타 중 지가, 디터스도르프 - 독일 춤곡, 베버 - 시골춤곡



8.572382
타카코 니시자키가 연주하는
스즈키 교습법 Vol.5
타카코 니시자키(vn)/ 테렌스 데니스(pf)/ 피터 월스/ 뉴질랜드 청소년 오케스트라
코렐리 - 라 폴라나 (스즈키 편곡버전 + 오리지널버전), 헨델 - 바이올린소나타 3번, 바이올린소나타 4번, 피오코 - 알레그로, 라모 - 가보트 1,2



8.572383
타카코 니시자키가 연주하는
스즈키 교습법 Vol.6
타카코 니시자키(vn)/ 테렌스 데니스(pf)
모차르트 - 미뉴엣 (오리지널 현악사중주 K241 중 미뉴엣 포함), 코렐리 - 쿠랑트 (오리지널 콘체르토 그로소 Op.6-9 중 쿠랑트 포함), 헨델 바이올린소나타 1번, 바흐 - 바이올린협주곡 BWV1041 (피아노반주버전 + 오리지널 관현악반주버전), 지그와 쿠랑트 (오리지널 첼로모음곡 BWV1007 중의 지그와 쿠랑트 포함), 코렐리 - 바이올린소나타 Op.5 중 알레그로 (피아노반주버전 + 오르간반주버전)



8.572494
타카코 니시자키가 연주하는
스즈키 교습법 Vol.7
타카코 니시자키(vn)/ 테렌스 데니스(pf)
에클스 - 바이올린소나타 g단조, 베라치니 - 콘체르토-소나타 e단조, 푸나니 - 라르고 에스프레시보, 그레트리 - 아스파시 중 탕부랭, 바흐 - 라르고(오리지널 바이올린소나타 3번 BWV1005 중의 라르고 포함), 알레그로 (오리지널 바이올린소나타 BWV1023 중 알레그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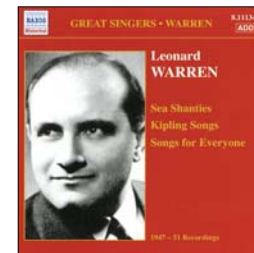


Naxos Historical & Musicals

www.naxos.com



8.112049
바흐:
파르티타 5, 6번, 건반협주곡 BWV1052
글렌 굴드(pf)/ 레너드 번스타인 / 컬럼비아 심포니
글렌굴드가 1957년 컬럼비아 레이블을 위해 남긴 레코딩들을 복각한 음반. 번스타인/ 컬럼비아 심포니와 협연한 바흐의 협주곡 BWV1052와 파르티타 BWV829, 830, 그리고 평균율 2권에 수록된 두 개의 푸가 (BWV883, 878)를 함께 수록하였다. 특히 협주곡 BWV1052는 첫 발매 당시 뉴욕타임스의 거물급 평론가 해롤드 찬버그의 극찬을 받았던 명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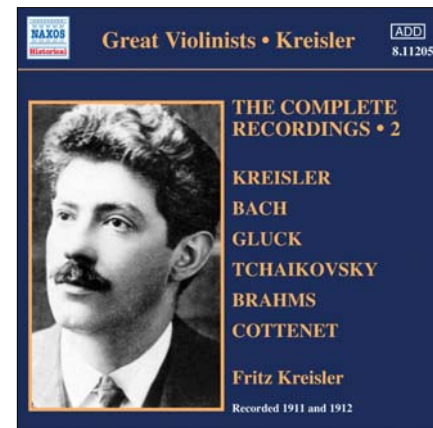
8.111345
Sea Shanties, 키플링의 노래들, 만인을 위한 노래들
레너드 워렌(bar)
레너드 워렌은 1950년대를 주름잡았던 미국의 바리톤으로, 1960년 무대 위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까지 메트로폴리탄의 간판 스타로 맹활약했다. 그는 오페라 레퍼토리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분야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1947년부터 1951년까지의 레코딩들을 모은 이 음반에는 8편의 바닷노래들을 비롯하여 4/50년대의 미국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들이 수록되었다.



8.120889
번스타인:
On the Town
오리지널 캐스팅 레코딩
On the town'은 번스타인의 발레 '팬시 프리'의 아이디어를 뮤지컬의 형태로 확장한 작품이다. 1944년 12월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되었고, 1949년에는 진 캘리, 프랭크 시나트라 등의 대스타들을 기용한 할리우드 영화로도 만들어 지기도 했다. 본 음반에는 1945년 오리지널 캐스팅과 번스타인이 연주한 주요곡 외에도, 아서 피들러/보스턴 팍스가 1946년에 연주한 팬시 프리 중의 세 개의 춤곡을 함께 담았다.



8.112050
드보르작:
교향곡 6번, 수크: 현을 위한 세레나데, 소콜행진곡
바츨라프 탈리히/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38년 11월 체코의 위대한 지휘자 바츨라프 탈리히와 체코 필하모닉은 런던 애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두 편의 드보르작 교향곡들을 녹음하였다. 앞서 선보였던 교향곡 7번과 이 음반에 수록된 교향곡 6번이 그것들이다. 이들 교향곡 외에도 드보르작의 사위인 수크의 주요 관현악들도 함께 녹음되었는데, 마크 오버트 손의 뛰어난 복각을 통해 이 값진 녹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8.112055
크라이슬러 레코딩 전집 Vol.2
프리트 크라이슬러(vn) 외
프리트 크라이슬러의 음반들은 레코딩 역사의 여명기였던 그 당시에도 백만장 이상의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음악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본 음반에는 1911년부터 1912년에 크라이슬러가 녹음한 다양한 소품들이 수록되었다. 빈가상곡, 중국의 탕부랭,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과 같은 유명 자작곡들 외에도, 브람스의 헝가리춤곡 5번, 글록의 정령들의 춤, 바흐의 가보트 등을 담았다.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
www.lpo.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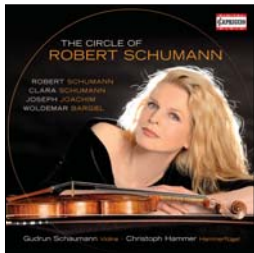


LPO-0045
브람스:
독일 레퀴엠
엘리자베스 와츠(sop)/ 스테판 드구(br)
야닉 네제 세긴/ 런던 필하모닉과 합창단
런던 필의 새로운 수석객원지휘자로 취임한 네제-세긴은 현재 로테르담 필의 음악감독으로도 활약중인 기대주다. 본 독일 레퀴엠은 2009년 4월 4일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의 실황을 옮긴 것으로, 브람스 특유의 섬세한 감수성과 종교적인 엄숙함을 감동적으로 구현하였다.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로 호평받고 있는 엘리자베스 와츠와 유럽 오페라계의 뉴히어로로 인기몰이 중인 스테판 드구의 열창도 감동적이다.



Capricc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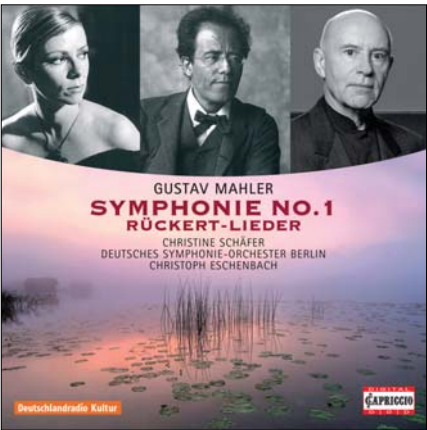
www.capriccio.at



C5040 [2 for 1]
슈만 부부, 요아힘 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구트룬 샤우만(vn)/ 크리스토프
함머(hammerflugel)
슈만 부부와 그들과 가까웠던 몇
몇 이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담은 음반. 로베
르트 슈만이 남긴 3편의 바이올
린소나타들과 3개의 로망스, 클
라라 슈만의 3개의 로망스, 요제
프 요아힘의 로망스, 클라라의
이복동생인 볼데마르 바기엘의
바이올린소나타를 수록하였다.
거트루드를 장착한 1731년산 스트
라디바리와 1836년에 제작된 함
머플뤼겔의 고아한 음색이 로맨
틱한 시정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
다.



C5039
러시아 가곡들(차이코프스키, 라
흐마니노프, 무소르스키 외)
조라나 쿠쉬플러(ms)/ 올레나
쿠쉬플러(pf)
우크라이나 출신의 쌍둥이인 쿠
쉬플러 자매가 연주한 러시아의
대표적인 낭만가곡들. 메조소프
라노 조라나는 현재 빈 국립오페
라의 주역 가수로 활동 중이며,
피아니스트인 올레나는 보나르
드 피아노트리오의 멤버와 가곡
반주자로 맹활약 중이다. 무소르
스키의 어린이를 위한 연가곡
'어린이방'을 비롯하여 차이코프
스키, 라흐마니노프, 림스카-코
르사코프의 개성적인 가곡들을
수록하였다.



C5026
말라:
교향곡 1번, 뤼케르트 가곡집
크리슈틴 새퍼(sop)/ 크리스토퍼 에센바흐/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에센바흐는 필라델피아 orch.와 더불어 Ondine에서 두 편(2,6번)의 우
수한 말라 교향곡을 녹음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독일의 중견인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와 함께 교향곡 1번에 도전하였다. 과거 휴스턴 심포니와
의 라이브가 Koch레이블을 통해 출시된 바 있지만, 이번 신보는 전작
의 감동을 능가한다. 정상급 소프라노 크리스틴 새퍼가 노래한 뤼케르
트 가곡집은 이 음반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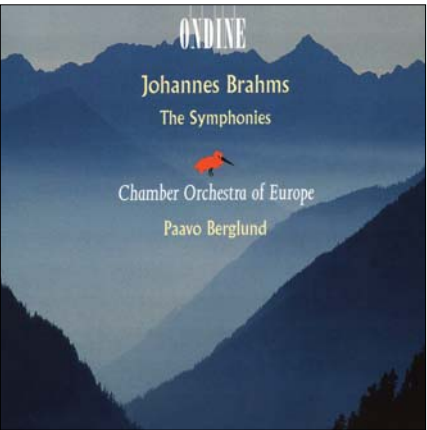


C7039 [5 for 2]
바르샤바 쇼팽 콩쿠르 실황
아르헤리치, 포고렐리치, 부닌, 하
라세비츠, 폴리니, 아쉬케나지 외
세계 최고의 피아노 콩쿠르인 바르샤바의 쇼팽 콩쿠르를 거쳤던 이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의 콩쿠르 당시의 연주들을 모은 아주 특별한 박스.
[CD 1]
마르타 아르헤리치:
피아노협주곡 1번, 왈츠 Op.34-1, 녹턴 Op.55-2, 에튀드 Op.10-1,10, 스케르초 3번
[CD 2]
이보 포고렐리치:
소나타 2번, 전주곡 중 21-24번, 에튀드 Op.10-8, 마주르카 Op.59-1,2,3, 발라드 Op.38
[CD 3]
아담 하라세비츠: 협주곡 2번, 즉흥곡 Op.51-3, 전주곡 Op.45-25, 발라드 1번
스타니슬라브 부닌: 전주곡 중 13-18번
[CD 4]
마우리치오 폴리니: 마주르카 Op.50-3, 녹턴 Op.48-1, 폴로네이즈 Op.44
할리나 체르니-스타판스카: 왈츠 1번, 즉흥환상곡, 군대폴로네이즈
케말 게키츠: 마주르카 Op.30-1,2,3,4
[CD 5]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에튀드 Op.25-18, 폴로네이즈 Op.53
장 마르크 루사드: 마주르카 Op.24-1,2,3,4
크지스토프 아블론스카: 녹턴 Op.9-3, 에튀드 Op.10-5, 25-10, 스케르초 1번
유발 피흐만: 스케르초 2번



Ondine

www.ondin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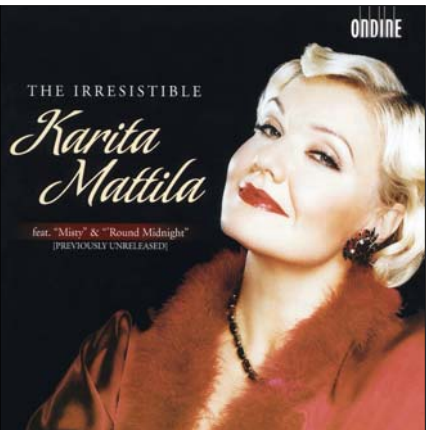
ODE990-2T [3CDs]
브람스: 교향곡 전집
파보 베르글룬트/ 챔버 오케스트라 오브 유럽
Gramophone Editor's Choice, Fono Forum *****
핀란드 출신의 거장 파보 베르글룬트가 챔버 오케스트라 오브 유럽과
함께 완성한 이 브람스 교향곡 전집은 2000년 5월 바덴바덴 페스티벌
홀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소규모 오케스트라의 정
교함을 기반으로 한 이 연주는 발매와 동시에 유수의 전문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한동안 국내 매장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 음반을
다시 만나보시라.
"이 작품들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꿔줄 충분한 디테일들을 담은 강건
하면서도 우아한 브람스" -Gramophone Aug. 2001



ODE1151-5 [Hybrid-SACD]
라흐마니노프:
성 요한 크리스소스토를 위한 전례
지그바르트 크와바/ 라트비아 라디오 합창단
라흐마니노프의 성 요한 크리스소스토를 위한 전례는 그의 저녁기도와 더
불어 근대 러시아 정교음악의 정수로 손꼽히는 걸작이다. 이 작품은
1910년 여름 불과 3주 정도만에 완성되었는데, 완성 이후 라흐마니노
프는 친구에게 자신이 이토록 기쁨에 넘쳐 작곡을 했던 적은 없었다고
술화하였다. 합창의 나라 라트비아를 대표하는 라트비아 방송합창단은
중후한 저음역을 기반으로 탄탄한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온딘의 고해상
도 녹음은 이 걸작의 감동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ODE1109-5 [Hybrid-SACD]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7개의 로망스
이본 내프(ms)/ 크리스토프 에센바흐(cond&pf)/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텔레라마 ffff
"이 라이브 레코딩만큼 풍부하고 투명한 서라운드 음향을 담은 음반이
없었다. 레코딩을 맡은 폴리힘니아는 서라운드 채널을 제한하지 않았
고, 오케스트라의 현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사운드는 이들이 오면디 휘
하에서 만들었던 것을 능가한다." John Sunier - Audiophile
Audition May 2008



ODE1171-2
The Irresistible Karita Mattila
카리타 마틸라가 노래하는 오페라 아리아들과 대중음악들
카다프 성악 콩쿠르의 우승 이후 세계적인 프리마돈나로 맹활약 중인
핀란드의 국보급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 탄호이저 중의 전당의 노래,
루실카 중의 달의 노래, 아이다 중의 이기고 돌아오라, 토스카 중의 노
래에 살고 등의 애창 오페라 아리아들과 Over the rainbow, Don't
cry for me Argentina, Smoke gets in your eyes, Misty,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와 같은 추억의 히트송들을 함께 노래하였다.



BR Klassik

www.br-klassik.de



900708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설립 60주년 기념 음반

[CD 1-2]
푸르트벵글러 교향곡 2번 - 1954년 오이겐 요훔

[CD 3]
브루크너 교향곡 8번 - 1977년 라파엘 쿠벨릭

[CD 4]
프랑크 교향곡, 린스키코르사코프: 러시아 부활절 서곡 - 1980년 키릴 콘드라신

[CD 5]
본 윌리엄스 교향곡 6번, 엘가 수수께끼변주곡 - 1983년 콜린 데이비스

[CD 6]
스트라빈스키 불새, 봄의 제전 - 1998/9년 로린 마젤

[CD 7]
R 슈트라우스 4개의 마지막노래, 틸 오이렌슈피겔, 장미의 기사 모음곡 - 2006/9년 마리스 안손스 + 안나 하르테로스(sop)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NDR 심포니와 더불어 독일의 여러 방송국 소속 오케스트라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연주력을 자랑하는 악단이다. 이 악단의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박스세트가 출시되었다. 1949년 창단 원년의 수석지휘자였던 오이겐 요훔, 그 후 임자였던 라파엘 쿠벨릭, 쿠벨릭의 후임으로 확정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던 키릴 콘드라신, 1983년부터 각각 10년씩 이 악단을 이끌었던 콜린 데이비스와 로린 마젤, 그리고 현재 수석지휘자인 마리스 안손스에 이르기까지 이 우수한 오케스트라를 거쳐갔던 6명의 세계적인 거장들이 남긴 진귀한 실황녹음들이 7장의 CD에 갈무리되었다.



900709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2, 23번
다니엘 바렌보임(pf)
라파엘 쿠벨릭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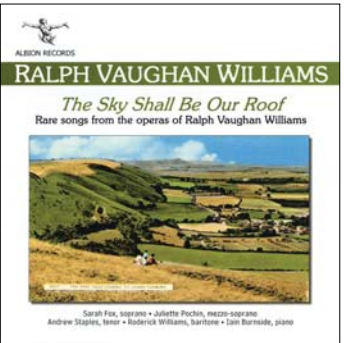
1970년 6월 5일과 6일에 각각 녹음된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23번과 22번을 담은 이 음반이 다니엘 바렌보임과 라파엘 쿠벨릭이라는 두 거장의 협연으로는 최초로 출시되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음반이다. 바렌보임이 당대 최고의 모차르트 스페셜 리스트로 명성이 드높았던 시절의 걸출한 기록으로 쿠벨릭의 안정된 반주와 더불어 모차르트 협주곡의 진면목을 선사해준다.



Albion Rec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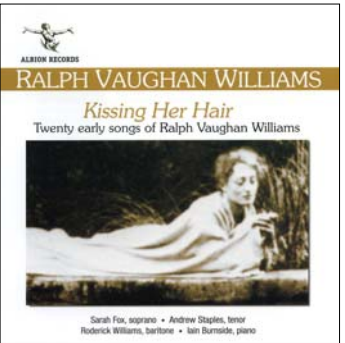
www.albionrecords.org

알비온 레코드는 1994년 영국의 본 윌리엄스 협회가 직접 설립한 레이블의 이름입니다. 본 윌리엄스의 희귀 작품들을 레코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5종의 음반이 발매되었으며, 첫 발매작인 'The Sky Shall be Our Roof'는 그라모폰 2008년 3월호의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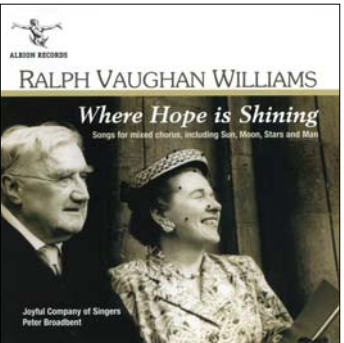
ALBCD001
본 윌리엄스:
The Sky Shall Be Our Roof
사라 폭스, 줄리엣 포친, 앤드류 스테이플스, 로데릭 윌리엄스/
이안 번사이드(pf)

그라모폰 2008년 3월호 에디터스 초이스본 윌리엄스가 작곡한 3편의 오페라들인 'Hugh the Drover', 'Sir John in Love', 'Pilgrim's Progress'에 포함된 주요 노래들을 수록한 음반 'Greensleeve'와 같은 귀에 익은 영국민요들은 물론, 다양한 개성을 담은 아기자기한 노래들이 영국 음악 애호가들을 즐겁게 만들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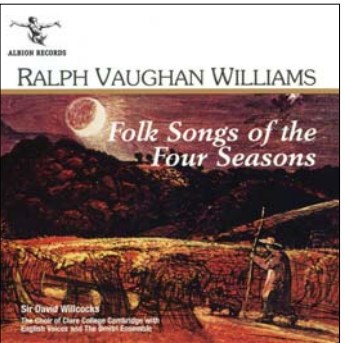
ALBCD002
본 윌리엄스:
Kissing Her Hair
사라 폭스, 앤드류 스테이플스, 로데릭 윌리엄스/ 이안 번사이드(pf)

본 윌리엄스의 초기 가곡들을 모은 음반. 음반 타이틀을 담은 작품인 'Rondel'은 지금껏 출판과 녹음이 되지 않았던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곡으로 작곡가가 22세 때 완성한 작품답게 풋풋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노래다. 수록된 20여편의 가곡들은 서정적인 시상을 음악적으로 탁월하게 표현해 내었던 본 윌리엄스의 미덕을 훌륭히 보여준다.



ALBCD006
본 윌리엄스:
Where Hope is Shining
피터 브로드벤트/ 조이폴 컴퍼니 오브 싱어즈

본 음반에는 본 윌리엄스가 20초반이던 1895년부터 만년인 1954년에 출판된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의 긴 음악경력 동안 완성했었던 혼성합창을 위한 소품들이 수록되었다. 스스로 '사람의 목소리는 감정을 실어내는 가장 훌륭한 매체'라고 밝혔듯이 그의 합창곡들은 유려한 선율의 흐름과 풍부한 화성을 통해 텍스트의 시상을 감동적으로 표현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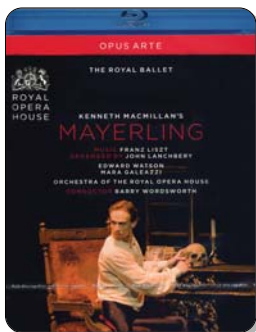


ALBCD010
본 윌리엄스:
사계절의 민요들
데이비드 윌콕스
클레어 칼리지 합창단, 잉글리시 보이시즈, 드미트리 앙상블

여성합창을 위한 칸타타인 '사계절을 위한 민요'와 여성합창 버전으로 편곡된 '원저 숲 속에서' 모두 세계 최초의 레코딩이다. '사계절을 위한 민요'는 하이든의 걸작 오라토리오와 마찬가지로 자연이 아름다운 변화상과 그에 따른 삶을 아름다운 민요 선율을 통해 표현한 작품이며, '원저의 숲'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원저의 유쾌한 아낙네들'에 기초한 자신의 오페라 'Sir John in Love'를 칸타타 형태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Arte OABD 7061D

마이얼링

에로스와 **아나토스**가 동시에 구현된 최고의 발레, 그 15년만의 영상물
예술을 창조하는 동력으로 가장 중요한 양대 요소가 에로스(Eros)와 타나토스(Thanatos)다. 에로스는 광의의 의미로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며 협의로는 성적인 매혹을 가리킨다. 반면 타나토스는 죽음에 대한 동경이다. 양자는 서로 대립되는 의미이면서도 예술가들을 가장 매혹시키는 주제인 것이다. 또 이 정반대의 의미가 결합하면 가장 폭발적인 정서적 분출을 일으키게 된다. 발레에 있어서 그 대표적 작품이 케네스 맥밀란의 <마이얼링>이다. <마이얼링>은 구체적 내용을 묘사하는 드라마 발레다. 1889년 1월 오스트리아의 궁정 사냥터 마이얼링에서 실제 벌어진 사건으로, 유전적 정신질환에 시달리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태자 루돌프(당시 31세)는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17세의 소녀 마리 베체라와 권총 자살하고 말았다. 에로스에 탐닉하던 방종한 황태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이 숨 막히는 박진감으로 그려진다. 로열 발레의 무용수들이 가장 추고 싶어 하는 문제작이지만 1994년 이후 새 자료가 없었던 이 발레의 15년 만의 영상물이다. 에드워드 왓슨이 루돌프의 실제 모습과 무척 닮은 캐릭터를 창조했으며, 이탈리아 출신의 마라 갈레아치가 대범한 소녀 마리 베체라를 열연한다.



OpusArte OABD 7064D

온디네

발레의 인어공주 이야기, 로열 발레의 2009년 최신 실황
안데르센 동화로 유명한 인어공주는 신데렐라와 마찬가지로 유럽 어디에나 비슷한 설화가 존재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다. 물의 요정, 그들에게 금기시된 인간에 대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오르는 사랑과 그로 인한 비극, 물속 세계에 대한 묘사 등등... 특히 발레에서는 수중에서 벌어지는 디베르티스망이 중요한 관심사여서 부르농빌의 <나폴리>, 프티파의 <파라오의 딸>, 우리나라 유니버설 발레단 고유의 레퍼토리인 애드리언 댈러스의 <심청>이 그런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그 또 하나의 예가 영국 발레의 국민적 존재인 프레데릭 애쉬튼이 안무한 <온디네>이다. 특히 물의 요정 온디네는 모든 면에서 인어공주와 가장 많이 닮은 캐릭터이며 발레는 비극으로 끝맺는다. 1958년에 초연된 작품으로서 양식상으로는 고전 발레의 구조와 테크닉을 갖고 있지만 한스 베르너 헨체의 현대음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특별한 발레가 되었다. 그동안 일부 장면이 생략된 마그트 폰테인의 오래된 필름만이 존재했을 뿐인데, 본 영상물은 2009년 6월 로열 발레에서 공연된 최신 실황을 담고 있다. 1995년 이래 동 발레단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일본의 요시다 미야코가 혼신의 열연으로 온디네 역할을 잘 소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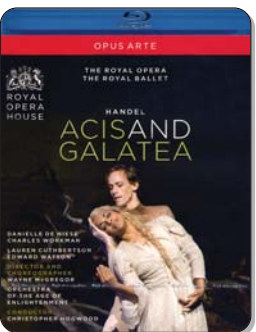
OpusArte OABD 7057D

도니체티: 사랑의 묘약

새로운 러시아 스타 예카테리나 슈리나가 돋보이는 글린드본 실황
적지 않은 영상물이 이미 존재하는 인기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새 자료가 추가되었다. 마우리치오 베니니가 지휘하고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슈리나(아디나), 영국의 피터 오티(네모리노), 이탈리아의 루치아노 디 파스칼레(약장수 돌카마리)가 출연한 2009년 8월 글린드본 페스티벌 최신 실황이다. 그 중에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미성과 출중한 음악성을 자랑하는 예카테리나 슈리나의 등장은 놀랍다. 모차르트와 도니체티를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젊은 스타로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소프라노다. 상대역인 테너 피터 오티는 어린 시절 세인트 폴 성당의 소년합창단에서 실력을 닦았으며 애니메이션 필름 <스노우 맨>의 타이틀곡인 'Walking in the Air'를 부른 오리지널 가수이기도 하다. 성인이 된 지금은 영국 음악계가 주의를 기울여 기대하는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이다. 지휘자 마우리치오 베니니는 벨칸토 오페라에 관한 한 이 시대 최고의 마에스트로로서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오페라 극장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여류 연출가 애너벨 아든의 섬세하고도 화사한 연출은 글린드본의 일급 무대를 더욱 밝게 빛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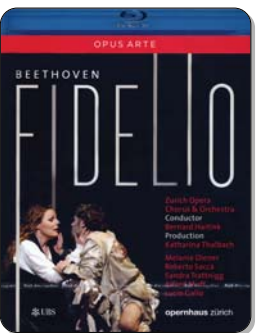


헨델: 아시스와 갈라테아



OpusArte OABD 7056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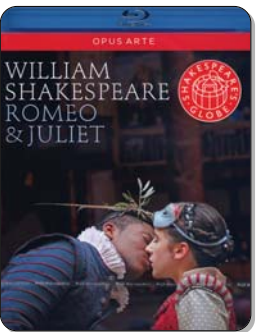
오페라계의 신성 다니엘 드 니스의 매력을 듬뿍 담은 영상물
헨델의 '아시스와 갈라테아'는 오비디우스의 '메타모르포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존 게이의 영어 리브레토에 곡을 붙인 것으로, 영국 고유의 마스크, 오페레타, 전원극, 세레나타, 오라토리오 어느 쪽에 포함되더라도 무방한 작품이다. 헨델 자신은 '작은 오페라'라고 불렀다. 자신이 1708년에 작곡했던 이탈리아어 칸타타(또는 세레나타) '아치스, 갈라테아 그리고 폴리페모'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일부 곡은 다시 이 작품에서 재활용되기도 했다. 본 영상은 2009년 4월 8일 로얄 오페라 코벤트 가든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영국이 낳은 천재적인 젊은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가 오페라와 발레를 결합한 형식으로 이 작품을 재해석한 것이다. 맥그리거는 앞서 퍼셀의 '디도와 아에네아스'에서도 동일한 컨셉의 연출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프로덕션에서도 감각적인 안무의 발레를 통해 이 작품의 근본적인 약점인 단순한 드라마투르기를 보완해주는 효과를 얻고 있다. 오페라계의 탑스타로 급부상한 다니엘 드 니스는 노래와 연기 뿐만 아니라 빼어난 춤사위까지 보여주며, 로얄 오페라 전속으로 활약 중인 우리의 젊은 기대주 박지민이 코리던 역으로 출연한다.



OpusArte OABD 7040D

베토벤: 피델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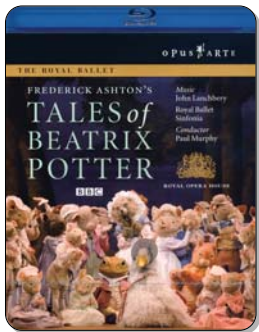
베토벤 유일의 오페라 : 남장하고 남편을 구한 송고한 아내의 이야기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인 베토벤은 오페라를 몇 곡 썼을까? 답은 단 하나, 바로 <피델리오>다. 두 차례나 개정하고 서곡만도 네 곡을 썼을 정도로 지극정성을 기울이지만 베토벤의 성향 자체가 송고한 메시지에 집착하는 편이라 교훈적 작품이 되었고 기악곡만한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오페라의 진가다. 모든 드라마에서 등한시되기 쉬운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 억울하게 투옥되어 생명이 위태로운 남편을 구하고자 남장을 하고 잠입한 한 아내의 구출극인 <피델리오>인 것이다. 2008년 취리히 오페라 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은 배우 출신의 여류 감독 카타리나 탈바흐가 연출하고 이 오페라에 각별한 애착을 갖고 있는 거장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봉을 잡았다. 투명하면서도 풍부한 음향은 물론 따스한 정감까지 담아낸 하이팅크는 제2막의 1장과 2장 사이에 구스타프 말러가 세운 전통에 따라 가장 유명한 레오노레 서곡 제3편을 연주한다. 또 주인공의 남편 플로레스탄 역에 너무 무겁지 않은 음성을 지닌 테너 로베르토 사카를 캐스팅하여 베토벤 당시의 방식에 접근했다. 타이틀 롤은 전성기를 맞은 독일 소프라노 멜라니 디너가 부른다.



OpusArte OABD 7062D

셰익스피어: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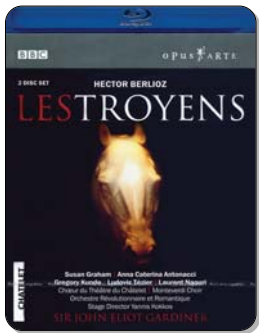
셰익스피어 시대를 완벽 재현한 글로브 극장의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연극 가운데에서도 영화,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 다양한 매체로의 전환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작품으로 꼽힌다. 작가의 명성만큼이나 유명한 두 어린 주인공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현재의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나간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늘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폭넓게 변환되고 있는 것은 두 주인공이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2009년 런던의 셰익스피어 글로브극장에서의 공연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은 형식과 내용면에서나 원작에 가까운 연출을 따르고 있다. 스무 살 전후의 젊고 매력적인 배우들이 주역을 맡고, 노련한 배우들은 주변 인물을 맡음으로써 원작에 한 발 더 다가선 극의 전개를 보여준다. 셰익스피어 당대의 원형에 가깝게 새롭게 재건된 글로브 극장 안에서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정확한 발성은 세심한 연출과 탄탄한 텍스트의 힘입어 그의 시대가 그대로 옮겨졌다. DVD 두 장으로 구성된 이 영상물은 DVD는 3막으로 이루어진 연극 본편 외에, 배우들에 대한 소개와 유명한 대사를 찾을 수 있는 영상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셰익스피어 팬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OpusArte OABD 7058D

베아트릭스 포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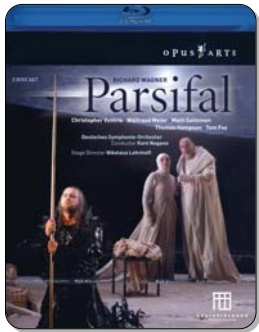
베아트릭스 포터의 동물 동화를 발레로 만나는 최고의 선물!
크리스 누난이 감독한 영화 <미소 포터>(2006)은 영국의 국민적 동화작가 베아트릭스 포터(1866~1943)의 삶과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다. 포터는 23권위 동화를 남겼는데 그 대부분은 '피터 레빗'이라는 토끼로 대표되는 다양한 동물 캐릭터다. 이 주인공들은 지금도 옷과 갑옷등의 캐릭터로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 본 영상물은 포터의 동화 주인공인 갖가지 동물들 이야기를 발레로 만든 것이다. 영국 로열 발레의 무용수들이 토끼, 쥐, 거위, 개구리, 여우등 등으로 분장하여 이야기하기하고 환상적인 동화의 세계로 이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동화발레는 없다고 할 정도이며 어린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물론 어른들이 보더라도 최고의 가족 발레다. 이 멋진 작품을 만든 이는 영국의 프레데릭 애쉬튼(1904~1988)이다. 그는 로열발레의 산증인이라 할 만큼 20세기 영국 발레의 역사를 관통하는 안무가이며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따스하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데 있어서 최고 거장이었다. <베아트릭스 포터>이야기는 1971년에 초연되었으며 당시 영화판 영상자료가 있으나 2007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연된 본 영상물이 한층 매력적이다.



OpusArte OABD 7059D

베를리오즈: 트로이 사람들

사들레 극장에서 웅장하게 펼쳐진 베를리오즈 탄생 200주년 기념공연
바그너를 예비한 혁신적 작곡가였던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2003년 10월 파리 사들레 극장에서 펼쳐진 역사적 공연을 담았다. <트로이 사람들>은 1,2막에 트로이의 멸망을, 3,4,5막에 트로이를 탈출한 영웅 에네와 카르타고의 여왕 디돈의 비극적 사랑을 다룬 베를리오즈 최고의 대작! 사실상 두 개의 오페라가 결합된 것이기에 상연 시간만도 4시간을 훌쩍 뛰어 넘는다. 존 엘리엇 가디너 지휘의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가 베를리오즈의 장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남김없이 재현한 가운데 안나 카테리나 안토나치(카산드라), 수잔 그레이엄(디돈), 그레고리 쿤데(에네) 등 초대형 가수들이 열연을 펼친다. 거대한 반사경을 무대 뒤에 비스듬히 세워 등장인물들의 뒷모습까지 포착한 탁월한 무대 연출, 엑토르의 유령과 말의 질주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첨단 영상장치 등 현대적 연출의 총화일 뿐 아니라 무려 56분짜리의 흥미진진한 제작 다큐멘터리가 스페셜 피쳐로 제공된다.



OpusArte OABD 7063D

바그너: 파르지팔

4개의 국제적 오페라 극장이 공동 제작한 <파르지팔>의 최신 결정판
<파르지팔>은 바그너 최후의 오페라이며 바그너가 특별히 '종교적 신성극'으로 불렀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바이로이트에서만 공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제는 그 제한이 풀렸지만 바그너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메시지를 4시간이 넘게 전달하는 이 작품을 만날 기회는 좀처럼 흔치않다. 이 대작을 위해 바덴바덴 축제 가극장, 영국 국립 오페라,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시카고 리릭 오페라라는 세계적 극장들이 뭉쳤다. 그리고 2004년 여름에 바덴바덴에서 공연된 그 결실이 여기 담겨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바그너 연출가의 한 사람인 니콜라우스 랑호프가 "종교극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고독, 소외에 대한 드라마"라는 시각에서 이 작품을 연출했다. 그러나 상징적 무대와 공들인 의상은 <파르지팔>의 보편적 매력을 심분 살렸다. 켄트 나가노와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이 작품에 어울리는 투명한 연주를 펼치며, 크리스토퍼 벤토리스, 발트라우트 마이어, 마티 살미넨, 토머스 험슨등 최고의 가수들이 출연한다. 60분짜리 제작 다큐멘터리도 제공된다.



Arthaus 101 490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팔리아치

이 시대의 드라마티코 호세 쿠라, 베리즈모 오페라의 진수를 펼쳐다
현재 세계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는 누구일까? 새로운 스타도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레퍼토리와 연륜을 감안했을 때 아르헨티나의 호세 쿠라(1962~)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지난 세기의 위대한 드라마티코 마리오 델 모나코와 존 비커스를 합쳐 놓은 이미지의 쿠라는 거칠고 무례한 역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한다. 또한 지휘자로서의 활동을 병행할 정도로 자기만의 독특한 음악적 뉘앙스를 갖고 있다. 그가 베리즈모 오페라의 대표작 두 편,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에 나란히 출연했다. 베리즈모 오페라란 치정으로 얹힌 암울한 상황을 그려낸 이탈리아 사실주의 오페라를 말하는데, 이 두 작품은 각각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를 배경으로 라틴적인 격정이 빛어내는 비극과 지중해권의 아름다운 풍광을 절묘하게 대조시키고 있다. 2009년 취리히 오페라 최신 실황이며 동 극장의 예술감독 그리샤 아사자로프가 직접 연출을 맡았는데, 암울한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무대를 꾸몄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는 국내에도 팬이 많은 파올레타 마로쿠가, <팔리아치>에는 피오렌차 체돌린스, 카를로 구엘피가 호세 쿠라와 함께 출연했다.



Arthaus 101 496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프란츠 벨저-뫼스트가 지휘한 모차르트의 가장 매력적인 오페라
'여자는 다 그래'라고 번역되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부파 '코지 판 투테'는 다 폰테 삼부작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완성된 작품이다. 스와핑을 연상케 하는 다소 비유리적인 내용과 여성 전체에 대한 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많은 후대인들로부터 비판받기도 했던 작품이지만, 음악적인 아름다움에서만큼은 모차르트의 모든 오페라들 중에서도 가장 상위권을 다룬만한 매력적인 걸작이다. 본 영상은 2009년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차기 빈 슈타츠오퍼의 음악감독으로 취임예정인 프란츠 벨저-뫼스트의 명석한 지휘와 관록의 모차르트 히로인 말린 하르텔리우스, 최근 금성장제의 메조 안나 보니타티부스, 바스티유의 '용유병의 여인'에서 드세이의 상대역으로 호평을 받았던 마성의 테너 하비에르 카마레나, 취리히 오페라의 새로운 스타로 인기몰이 중인 루벤 드롤로 구성된 주역가수들의 뛰어난 앙상블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바그너와 현대오페라 쪽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던 독일 출신의 명연출가 스펠 에릭 베히를프는 간결한 무대와 절제된 연가를 통해 이 작품의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보다 돋보이게 만든다.



Arthaus 101 304

도니체티: 돈 파스칼레

도니체티의 정통 오페라 부파! 늙은 구두쇠가 임자를 제대로 만나다!
가에타노 도니체티는 벨칸토 오페라의 대가인 동시에 희극적 소재를 다루는데에도 능통했다. 그 삼대 걸작이 훈훈한 목가극인 <사랑의 묘약>, 파리 극장가를 겨냥한 불어 오페라 <연대의 딸>, 그리고 이탈리아 정통 오페라 부파로 회귀한 만년의 걸작 <돈 파스칼레>다. 이중 음악적인 면에서는 <돈 파스칼레>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다. 돈이 아까워 결혼도 하지 않은 늙은 구두쇠 돈 파스칼레는 재산을 물려줄 조카 에르네스토가 가난한 과부와 결혼한다고 하자 차라리 자기가 늦장가를 들겠라며 친구 말라테스타 박사의 여동생을 소개받는다. 그러나 신분을 속인 이 여자아말로 에르네스토가 사랑하는 노리나이다. 노리나는 순진한 척 하고 가짜 공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돈 파스칼레와 결혼하지만 식이 끝나자마자 낭비벽이 엄청난 여인으로 돌변하여 돈 파스칼레를 절망에 빠뜨리는데...가장 뛰어난 바소 부포(희극적인 베이스)로 정평 있는 클라우디오 데스데리가 타이틀 롤을 맡고 거장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2006년 라벤나 페스티벌 실황이다. 노리나를 부른 이탈리아의 젊은 소프라노 라우라 조르다노의 매력은 보는 이를 사로잡을 것이다.



Arthaus 101 342

특별한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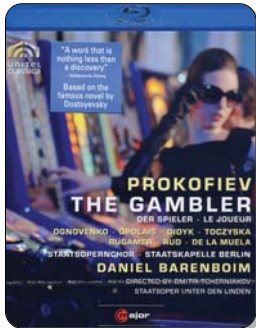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여전히 아름다운 게오르규, 로린 마젤의 강렬한 카리스마, 라몬 바르가스의 열창
루마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는 솔티와 함께 했던 1994년 코벤티가든의 '라트라비아타' 공연실황으로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오페라계의 새로운 히로인으로 화제의 중심에 자리 잡았었다. 네 트레프코의 등장으로 인해 게오르규의 '라트라비아타'가 다소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느낌이지만, 2007년 밀라노 라 스칼라에서의 공연실황을 담은 본 DVD는 그가 여전히 매력적이고 우아한 비올레타임을 다시금 증명해준다. 13년 전에 비해 연륜이 배어나오는 얼굴지만, 우아한 자태와 기품이 배어나오는 연기는 이전보다 한결 농익은 느낌이다. 로린 마젤은 강렬한 카리스마로 전곡을 이끌어 나가며,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테너 라몬 바르가스의 성실한 가창과 이탈리아의 관록의 바리톤 로베르토 프론탈리의 듬직한 서포트도 인상적이다. 연출가 밀리아나 카바니는 과거 모험적인 연출로 술한 화제를 낳기도 했지만, 본 영상에서는 호화로운 무대와 정통적인 연출로 일반적으로 기대하게 되는 이 오페라의 이미지를 충실히 반영해내었다.



www.cmajor-entertainment.com

프로코피예프: 도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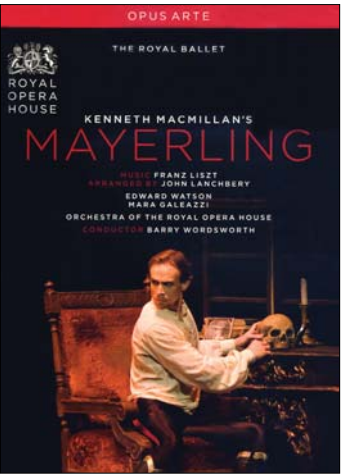
C-Major 701804

돈의 노예가 된 가련한 인간 군상을 그린 도박 오페라
'도박사'는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동명소설을 기반으로 프로코피예프가 완성한 4막 오페라다. 프로코피예프는 돈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도박판에 투영된 인간의 헛된 욕망과 나약함을 음울하게 그린 원작소설의 내용을 강렬한 음악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려내었다. 1966년 러시아에서 오페라영화로 제작된 흑백필름이DVD로 출시된 적이 있지만, 오페라 공연실황으로는 2008년 3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에서의 프로덕션을 담은 이 영상물이 최초다. 현재 마린스크 극장의 무대감독으로 활약 중인 촉망받는 젊은 연출가 드미트리 체르니 아코프는 현대적이면서도 사실적인 무대 위에서 가수들의 자연스런 연기를 이끌어내었으며, 러시아 출신의 일급 가수들이 중용된 출연진 역시 연기와 노래 양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다. 거장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끄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는 청년기 프로코피예프의 야성적인 음악세계를 충실히전달해준다. 그리고 벨리니 콩쿠르, 프란시스카 쿠아르트 콩쿠르, 발레시아 무지카 콩쿠르에서 연속 우승한이후 라 스칼라와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에서 활약 중인 테너 김기현이 4막 카지노 장면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등장한다.



OpusArte DVD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OA 1028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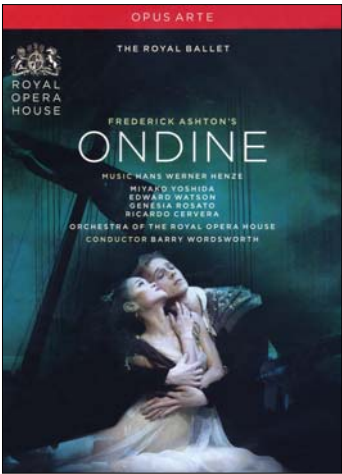
마이얼링

에로스와 아나토스가 동시에 구현된 최고의 발레, 그 15년만의 영상물
예술을 창조하는 동력으로 가장 중요한 양대 요소가 에로스(Eros)와 타나토스(Thanatos)다. 에로스는 광의의 의미로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며 협의로는 성적인 매혹을 가리킨다. 반면 타나토스는 죽음에 대한 동경이다. 양자는 서로 대립되는 의미이면서도 예술가들을 가장 매혹시키는 주제인 것이다. 또 이 정반대의 의미가 결합하면 가장 폭발적인 정서적 분출을 일으키게 된다. 발레에 있어서 그 대표적 작품이 케네스 맥밀란의 <마이얼링>이다. <마이얼링>은 구체적 내용을 묘사하는 드라마 발레다. 1889년 1월 오스트리아의 궁정 사냥터 마이얼링에서 실제 벌어진 사건으로, 유전적 정신질환에 시달리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태자 루돌프(당시 31세)는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17세의 소녀 마리 베체라와 권총 자살하고 말았다. 에로스에 탐닉하던 방종한 황태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이 숨 막히는 박진감으로 그려진다. 로열 발레의 무용수들이 가장 추고 싶어 하는 문제작이지만 1994년 이후 새 자료가 없었던 이 발레의 15년 만의 영상물이다. 에드워드 왓슨이 루돌프의 실제 모습과 무척 닮은 캐릭터를 창조했으며, 이탈리아 출신의 마라 갈레아치가 대범한 소녀 마리 베체라를 열연한다.

[보충자료]

○ 케네스 맥밀란(1929~1992)은 존 크랑코와 더불어 전막 드라마 발레를 유행시킨 최대 공로자이다. 역사적 소재, 연극적인 줄거리, 강렬한 성적 표현에 몰두하였으며, 지나칠 정도의 실험정신으로 성공작과 졸작이 혼재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1960년대에는 발레리나 린 세이모어, 1980년대에는 알레산드라 페리를 총애한 것으로 유명한데, <마이얼링>은 마리 베체라 역에 린 세이모어를 염두에 두고 1977년에 만든 작품이다.

○ 발레의 배경은 1880년대 후반 오스트리아로, 1889년 1월 30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위 계승자인 루돌프가 자신의 어린 애인 마리 베체라와 함께 동반 자살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목인 마이얼링은 이들이 함께 죽은 사냥 오두막이 있는 지역의 지명이다. 그가 왜 자살을 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당시에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교인 가톨릭의 교리상 자살은 교회에 묻힐 수도 없고 장례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사인(死因)은 심장발작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의 여지를 주었고 수많은 루머가 돌았다. 이 발레에는 루돌프의 모후인 엘리자베트 왕비도 등장한다. 그녀는 '시시'란 별명으로 유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왕비로 통했던 유명한 여인이다. 아들을 어이없이 잃었을 뿐 아니라 자신도 9년 후에 한 무정부주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세상을 뜬 비운의 주인공이었다.



Opus Arte DVD OA 1030D

온디네

발레의 인어공주 이야기, 로열 발레의 2009년 최신 실황

안데르센 동화로 유명한 인어공주는 신데렐라와 마찬가지로 유럽 어디에나 비슷한 설화가 존재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다. 물의 요정, 그들에게 금기시된 인간에 대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오르는 사랑과 그로 인한 비극, 물속 세계에 대한 묘사 등등... 특히 발레에서는 수중에서 벌어지는 디베르티스망이 중요한 관심사여서 부르농빌의 〈나폴리〉, 프티파의 〈파라오의 딸〉, 우리나라 유니버설 발레단 고유의 레퍼토리인 애드리언 댈러스의 〈심청〉이 그런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그 또 하나의 예가 영국 발레의 국민적 존재인 프레데릭 애쉬튼이 안무한 〈온디네〉이다. 특히 물의 요정 온디네는 모든 면에서 인어공주와 가장 많이 닮은 캐릭터이며 발레는 비극으로 끝맺는다. 1958년에 초연된 작품으로서 양식상으로는 고전 발레의 구조와 테크닉을 갖고 있지만 한스 베르너 헨체의 현대음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특별한 발레가 되었다. 그동안 일부 장면이 생략된 마고트 폰테인의 오래된 필름만이 존재했을 뿐인데, 본 영상물은 2009년 6월 로열 발레에서 공연된 최신 실황을 담고 있다. 1995년 이래 동 발레단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일본의 요시다 미야코가 혼신의 열연으로 온디네 역을 잘 소화했다.

[보충자료]

○ [줄거리] **(1막)** 베르타의 성에 팔레몬이 도착하여 구혼하나 베르타는 속으로 좋아하면서도 도도한 척 거절한다. 물의 요정 온디네가 이곳에 나타나 놀고 있는 것을 팔레몬이 발견하고 호감을 갖는다. 온디네는 도망가고 팔레몬도 쫓아간다. 숲에서 온디네와 팔레몬은 재회하여 서로의 감정을 표현한다. 물의 요정의 두목 티레니오가 분노하지만 팔레몬과 온디네는 현자의 주례로 즉석에서 결혼하고, 온디네는 인간의 영혼을 얻는다. 숲으로 쫓아온 베르타 일행은 물의 요정들에게 혼쭐이 나고, 티레니오는 사랑하는 온디네가 인간을 따라 떠난 것에 분노한다. **(2막)** 결혼한 두 사람이 배에 오른다. 그들 몰래 베르타도 승선한다.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되자 온디네가 물의 요정의 힘으로 잔잔하게 만든다. 베르타는 온디네가 마녀라고 선원들을 선동한다. 미신에 젖은 선원들은 티레니오가 일으킨 풍랑을 온디네 탓이라 여기고 그녀를 바다에 던져버린다. 풍랑은 거세지고 배가 침몰하는 위기에 도달하자 팔레몬은 베르타를 구해 탈출한다. **(3막)** 베르타와 팔레몬의 결혼식 날이다. 결혼 축하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티레니오와 물의 요정들은 베르타와 하객을 폭풍우로 휩쓸어 버린다. 팔레몬만 남겨졌을 때 온디네는 슬픈 모습으로 나타난다. 배신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입맞춤은 곧 죽음을 의미하지만 최후의 파드되가 펼쳐지고 사랑의 감정에 휩싸인 사람은 키스하고 팔레몬은 죽어간다. 팔레몬의 시신 위에 온디네는 절규한다.



Opus Arte DVD OA 1026D

도니체티: 사랑의 묘약

새로운 러시아인 스타 예카테리나 슈리나가 돋보이는 글리인드본 실황

적지 않은 영상물이 이미 존재하는 인기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새 자료가 추가되었다. 마우리치오 베니니가 지휘하고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슈리나(아디나), 영국의 피터 오티(네모리노), 이탈리아의 루치아노 디 파스칼레(약장수 돌카마라)가 출연한 2009년 8월 글리인드본 페스티벌 최신 실황이다. 그중에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미성과 출중한 음악성을 자랑하는 예카테리나 슈리나의 등장은 놀랍다. 모차르트와 도니체티를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젊은 스타로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소프라노다. 상대역인 테너 피터 오티는 어린 시절 세인트 폴 성당의 소년합창단에서 실력을 닦았으며 애니메이션 필름 〈스노우 맨〉의 타이틀곡인 ‘Walking in the Air’를 부른 오리지널 가수이기도 하다. 성인이 된 지금은 영국 음악계가 주의를 기울여 기대하는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이다. 지휘자 마우리치오 베니니는 벨칸토 오페라에 관한 한 이 시대 최고의 마에스트로로서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오페라 극장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여류 연출가 애너벨 아든의 섬세하고도 화사한 연출은 글리인드본의 일급 무대를 더욱 밝게 빛냈다.

[보충자료]

○ 주인공이 죽거나(비극) 이별하는(멜로드라마)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맺어지는 경우를 ‘로맨틱 코미디’라고 한다. 그런데 영화나 안방극장에서 가장 인기 높은 로맨틱 코미디의 기본 구조를 떠올려 보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여자가 취직했는데 운명적으로 오너의 아들과 사랑에 빠지고, 사회적 신분 차이 때문에 온갖 수모를 겪다가 극적으로 맺어진다는 식이 가장 흔한 구조라 할 것이다. 〈사랑의 묘약〉도 알고 보면 이와 무척 닮았다. 단지 남녀의 역할을 뒤바꿔 버림으로서, 즉 잘난 여자와 별 볼일 없는 남자라는 점에서, 또 여인의 포용으로 남자를 감싼다는 점에서 마치 다른 유형의 이야기처럼 보일 뿐이다.

○ 〈사랑의 묘약〉은 오페라 부파의 전형적인 규범 몇 가지를 지키지 않는다. 우선 두 젊은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부친이나 후견인이 안 나온다. 모든 결정권은 젊은 처녀 아디나가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야외에서 벌어진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부파의 본질은 실내극이기 때문에 이 오페라는 초연 당시부터 시골의 선남선녀가 아가자기한 사랑 놀음과 작은 오페라 끝에 맺어진다는 의미에서 전원극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처럼 교과서적인 틀을 살짝 깨뜨린 것 때문에 보수적인 관객은 불평했겠지만 결국 인습을 벗어난 독특한 구성의 희가극이라는 더 중요한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Opus Arte DVD OA 1025D

헨델: 아시스와 갈라테아

다니엘 드 니스(갈라테아)/ 찰스 워크맨(아시스)/ 폴 애그뉴(데이먼)/ 매튜 로스(폴리페무스)/ 박민지(코리던)/ 로알 발레단/ 크리스토퍼 호그우드/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오페라계의 신성 다니엘 드 니스의 매력을 듬뿍 담은 영상물

헨델의 '아시스와 갈라테아'는 오비디우스의 '메타모르포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존 게이의 영어 리브레토에 곡을 붙인 것으로, 영국 고유의 마스크, 오페레타, 전원극, 세레나타, 오라토리오 어느 쪽에 포함되더라도 무방한 작품이다. 헨델 자신은 '작은 오페라'라고 불렀다. 자신이 1708년에 작곡했던 이탈리아어 칸타타 (또는 세레나타) '아치스, 갈라테아 그리고 폴리페모'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일부 곡은 다시 이 작품에서 재활용되기도 했다. 본 영상은 2009년 4월 8일 로알 오페라 코벤트 가든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영국이 낳은 천재적인 젊은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가 오페라와 발레를 결합한 형식으로 이 작품을 재해석한 것이다. 맥그리거는 앞서 파셀의 '디도와 아에네아스'에서도 동일한 컨셉의 연출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프로덕션에서도 감각적인 안무의 발레를 통해 이 작품의 근본적인 약점인 단순한 드라마투르기를 보완해주는 효과를 얻고 있다. 오페라계의 탑스타로 급부상한 다니엘 드 니스는 노래와 연기뿐만 아니라 빼어난 춤사위까지 보여주며, 로알 오페라 전속으로 활약 중인 우리의 젊은 기대주 박지민이 코리던 역으로 출연한다.

【보충자료】

○ '아시스와 갈라테아'의 시놉시스는 다음과 같다. 막이 오르면 목동들과 님프들이 어울려 평원의 기쁨을 노래한다. 절반은 신인 님프 갈라테아는 목동 아시스와 사랑에 빠졌다. 아시스의 친구인 목동 데이먼이 이 연인들에게 서로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을 충고한다. 연인들이 행복을 노래하는 가운데 1막이 마무리된다. 아시스와 갈라테아에게 거인 폴리페무스가 다가왔음을 경고하는 음울한 합창으로 2막이 시작된다. 갈라테아를 짝사랑하는 폴리페무스는 질투에 눈멀어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킨다. 아시스와 갈라테아는 영원한 사랑을 서로에게 약속하지만, 폴리페무스가 아시스를 살해하면서 이들의 사랑도 종말을 맞는다. 갈라테아는 비탄에 잠겨 연인을 잃은 슬픔을 노래하나, 합창단은 그녀에게 신성한 능력이 있음을 알려준다. 갈라테아는 자신의 힘으로 아시스를 아름다운 섬으로 바꾸고, 그의 불멸을 기뻐하면서 작품이 마무리 된다.

○ 주인공 갈라테아를 노래한 미국 소프라노 다니엘 드 니스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스리랑카와 네덜란드 출신의 부모사이에서 태어났다. 15세에 LA 오페라에 데뷔하였으며, 산타페 오페라와 메트를 거치면서 미국 오페라계의 새로운 피로 각광을 받았다. 유럽에 진출한 이후 바르코 오페라 쪽에서 크게 각광을 받았고, 특히 크리스티와 함께 했던 라모의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과 헨델의 '줄리오 체사레'(그라모폰 올해의 DVD수상작) 등이 DVD로 발매되면서 많은 팬을 만들어내었다. 최근에는 텍카와 전 속계약을 맺고 헨델과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리아음반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 테너 박지민은 영국 로알 오페라의 훈련 프로그램인 Jette Parker Young Artists에 30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이후, 현재 이 오페라단의 전속 아티스트로 활약 중이다. 2011년 시즌에는 밀라노 라 스칼라에서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 역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Opus Arte DVD OA 1023D

베토벤: 피델리오

베토벤 유일의 오페라. 남장하고 남편을 구한 송고한 아내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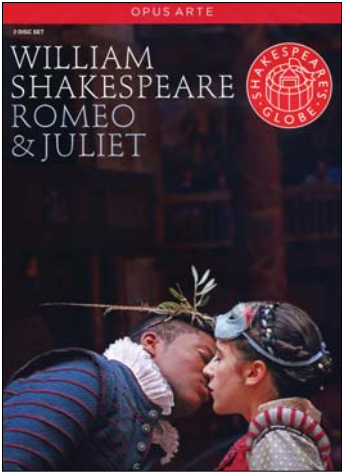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곡가인 베토벤은 오페라를 몇 곡 썼을까? 답은 단 하나, 바로 <피델리오>다. 두 차례나 개정하고 서곡만도 네 곡을 썼을 정도로 지극정성을 기울이지만 베토벤의 성향 자체가 송고한 메시지에 집착하는 편이라 교훈적 작품이 되었고 기악곡만한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오페라의 진가다. 모든 드라마에서 등한시되기 쉬운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 억울하게 투옥되어 생명이 위태로운 남편을 구하고자 남장을 하고 잠입한 한 아내의 구출극 이 <피델리오>인 것이다. 2008년 취리히 오페라 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은 배우 출신의 여류 감독 카타리나 탈바흐가 연출하고 이 오페라에 각별한 애착을 갖고 있는 거장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봉을 잡았다. 투명하면서도 풍부한 음향은 물론 따스한 정감까지 담아낸 하이팅크는 제2막의 1장과 2장 사이에 구스타프 말러가 세운 전통에 따라 가장 유명한 레오노레 서곡 제3번을 연주한다. 또 주인공의 남편 플로레스탄 역에 너무 무겁지 않은 음성을 지닌 테너 로베르토 사카를 캐스팅하여 베토벤 당시의 방식에 접근했다. 타이틀 롤은 전성기를 맞은 독일 소프라노 멜라니 디너가 부른다.

【보충자료】

○ <피델리오>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와 마찬가지로 독일 민속극에 음악을 입힌 징슈piel(singspiel)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탈리아식 레치타티보 대신 연극적인 독일어 대사를 사용한다. 다만 음악적으로는 징슈piel의 일반적인 특징인 민속성, 희극성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특징은 뒤로 갈수록 확인해진다.

○ 당대에 유행한 구출 오페라란 점도 중요하다. 구출 오페라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에 유행한 타입으로 모차르트의 <후궁 탈출>, 로시니의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베르디의 <해적>등이 여기 속한다. 예로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슬람 세계에서 구출되는 것인데 반해, <피델리오>는 감옥에서의 구출이라는 차이가 있다.

○ 플로레스탄 역은 오페라 역사상 최초로 드라마틱 테너를 위한 역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비극적 영웅의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토벤 자신은 강하게 깨닫지 못한 듯 보인다. 당시에 그런 목소리를 가진 테너가 과연 있었을까 싶기 때문이다. 이 공연에서 리릭 테너의 경력을 풍부하게 쌓아온 로베르토 사카를 캐스팅한 것은 그런 배경으로 추측된다. 사카는 독일과 이탈리아 혈통을 지닌 테너로서 독일에서 태어나 교육도 그곳에서 받았다. 주로 스위스에서 활동하면서 독일과 이탈리아 오페라를 두루 잘 하는 가수로 인정받고 있다.



Opus Arte DVD OA 1029D

셰익스피어: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 시대를 완벽 재현한 글로브 극장의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연극 가운데에서도 영화,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 다양한 매체로의 전환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작품으로 꼽힌다. 작가의 명성만큼이나 유명한 두 어린 주인공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현재의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나간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늘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폭넓게 변환되고 있는 것은 두 주인공이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2009년 런던의 셰익스피어 글로브극장에서의 공연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은 형식과 내용면에서나 원작에 가까운 연출을 따르고 있다. 스무 살 전후의 젊고 매력적인 배우들이 주역을 맡고, 노련한 배우들은 주변 인물들 맡음으로써 원작에 한 발 더 다가선 극의 전개를 보여준다. 셰익스피어 당대의 원형에 가깝게 재건된 글로브 극장 안에서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정확한 발성은 세심한 연출과 탄탄한 텍스트의 힘입어 그의 시대가 그대로 옮겨졌다. DVD 두 장으로 구성된 이 영상물은 DVD는 3막으로 이루어진 연극 본편 외에, 배우들에 대한 소개와 유명한 대사를 찾을 수 있는 영상이 함께 수록되어있어 셰익스피어 팬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보충자료]

○ 글로브 극장은 1613년, <헨리 8세>공연도중 쏜 대포의 불이 지붕으로 옮겨 붙으면서 전소되었다. 그후 오랜 연구 끝에 1996년 원형에 가깝게 재건된 역사를 갖고 있다. 글로브는 무대가 관객들 깊숙이 파고들어 있으며, 스탠딩 석으로 이용되는 마당까지 무대로 사용되곤 한다. 스탠딩 석과 무대 위의 귀빈석, 3층 구조의 객석을 포함하여 약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글로브는 야외극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대사 전달에 어려움이 없다.

○ 셰익스피어 시대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희극과 비극을 넘나드는 연출과 적당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극으로 인식되었다. 적개심과 증오로 둘러싸인 주변과 상관없이, 오로지 서로만을 바라보는 최고의 사랑을 나눈 두 어린 연인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인식하고 있는 현재와는 약간 다른 의미로 해석 되었던 것이다.

○ 본 공연은 막전, 막후 공연을 삽입함으로써 셰익스피어 시대의 공연 문화를 거의 완벽히 재현한다. 셰익스피어 시대의 무대의상을 입은 배우들과 현대 의상을 입은 관객들이 공연 내내 무대와 객석의 모호한 선을 넘나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극장 안의 관객들 까지도 연극의 한 부분으로 흡수 해버리는 글로브 극장만의 신비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ARTHAUS
M U S I K

Arthaus DVD

www.arthaus-musik.com



Arthaus DVD 101 489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팔리아치

이 시대의 드라마티코 호세 쿠라, 베리즈모 오페라의 진수를 펼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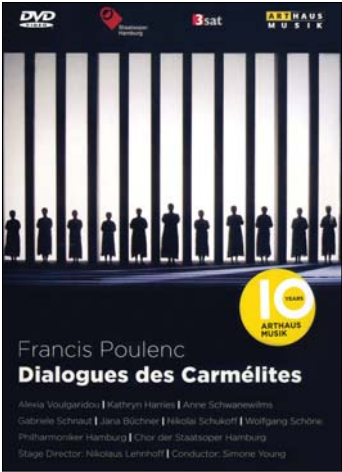
현재 세계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는 누구일까? 새로운 스타도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레퍼토리와 연륜을 감안했을 때 아르헨티나의 호세 쿠라(1962~)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지난 세기의 위대한 드라마티코 마리오 델 모나코와 존 비커스를 합쳐 놓은 이미지의 쿠라는 거칠고 무례한 역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한다. 또한 지휘자로서의 활동을 병행할 정도로 자기만의 독특한 음악적 뉘앙스를 갖고 있다. 그가 베리즈모 오페라의 대표작 두 편,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에 나란히 출연했다. 베리즈모 오페라란 치정으로 얽힌 암울한 상황을 그려낸 이탈리아 사실주의 오페라를 말하는데, 이 두 작품은 각각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를 배경으로 라틴적인 격정이 빛어내는 비극과 지중해권의 아름다운 풍광을 절묘하게 대조시키고 있다. 2009년 취리히 오페라 최신 실황이며 동 극장의 예술감독 그리샤 아사가로프가 직접 연출을 맡았는데, 암울한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무대를 꾸몄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는 국내에도 팬이 많은 파올레타 마로쿠가, <팔리아치>에는 피오렌차 체돌린스, 카를로 구엘피가 호세 쿠라와 함께 출연했다.

[보충자료]

○ 이탈리아, 특히 가난한 지역인 남부 민중들의 거친 삶과 원초적인 사랑을 소재로 삼은 것이 베리즈모 오페라다. 1890년대와 20세기 초에 붐을 이루었는데 이중 최초로 속하는 작품이자 내용이 나 음악에 있어서도 가장 전형적인 결작이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다. 한때 두 오페라는 하룻밤에 공연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연주시간을 빼면 실제 규모가 만만치않은 작품들이라 요즘은 따로 연주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역시 묶어서 보는 것이 제격이다.

○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주인공 투리두가 군대에 다녀 온 사이 옛 연인 롤라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마부 알피오와 결혼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투리두는 대신 산투자와 결혼을 약속한다. 그러나 롤라가 다시 투리두를 유혹하자 그는 옛사랑에 빠져든다. 이를 질투한 산투차는 이 사실을 알피오에게 알리고 마는데...

○ <팔리아치>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둔 늙은 순화극단 단장 카니오의 얘기다. 아내 넷다는 실비오라는 남자와 몰래 사랑을 나누다가 남편에게 들퍼버린다. 카니오는 차절한 심경이 되지만 공연을 위해 억지로 광대 분장을 한다. 그런데 이들이 공연하는 희극이 바로 현실에서와 똑같은 내용이다. 카니오는 연기 도중에 실제와 연극을 분간하지 못하는 광기에 빠져 버린다.



Arthaus DVD 101 493

풀랑: 카르멜 수녀들의 대화

알렉시아 불가리두(블랑셰)/ 볼프강 쉰(남작)/ 야나 뷔흐너(콘스탄체수녀)/
캐스린 하리스(마담 크르와시)/ 가브리엘 슈나우트(마리수녀) 외/
시몬 영(지휘)/ 함부르크 슈타츠오퍼

등골을 섬뜩하게 만드는 14번의 단두대 칼날 소리

‘살베 레지나’를 노래하는 수녀들의 송고한 합창이 진행되는 동안, 소름끼치는 급속성과 함께 기요틴의 칼날이 차례차례 그들의 목 위로 내리쳐진다. 20세기 오페라를 대표하는 명장면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이 장면은 바로 풀랑의 오페라 ‘카르멜 수녀들의 대화’의 대단원이다. 풀랑의 이 오페라는 폰 르 포트의 소설 ‘단두대의 마지막 여자’를 각색한 베르나노스의 영화 시나리오를 기초로 한 것으로, 이 내용은 실제 프랑스대혁명당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신앙과 삶 사이에서 번민하는 주인공 블랑슈의 고뇌와 마지막 순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그의 결단을 풀랑 특유의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과 유려한 선율미를 통해 표현해낸 걸작 오페라다. 본 DVD는 2008년 함부르크 슈타츠오퍼에서 있었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지휘자 시몬 영이 지휘봉을 잡았다. 여러 바그너 오페라 프로덕션을 통해 독특한 심미안을 보여줬던 연출가 니콜라 우스 렌호프는 간결하고도 상징적은 무대를 배경으로 이 감동적인 순교 오페라를 그려나간다. 특히 마지막 순교 장면의 강렬함은 기존의 두 영상물(1999년 랭 국립오페라, 2004년 라 스칼라)을 압도한다.

【보조자료】

○ 이 오페라는 1794년 7월 17일 기요틴에서 차례로 참수된 16명의 카르멜수도회 소속 수녀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였다. 오페라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주인공 귀족집안의 딸 블랑슈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녀가 되지만, 대혁명의 광기가 몰아치던 그 시절 신앙을 위해 삶을 포기해야할 순간이 닥쳐오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친다. 그러나 동료 수녀들이 단두대에서 차례로 순교하던 마지막 순간, 블랑슈는 의연하게 나타나서 자신의 생명을 하느님께 바친다.

○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지휘자 시몬 영은 현재 가장 정력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여류 지휘자의 한 사람이다. 자국에서의 음악교육을 마친 이후 유럽으로 건너가 쾰른과 베를린에서 각각 제임스 콜론과 다니엘 바렌보임의 어시스턴트로 활동하면서 음악계 일선에 나섰다. 1992년 베를린 코미세 극장에서의 데뷔 이후, 빈 슈타츠오퍼, 바스티유 오페라, 로알 오페라 코벤트가든,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의 주요 오페라 극장들을 두루 섭렵하면서, 일급 오페라 지휘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정립시켰다. 노르웨이 브레겐 필하모닉과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장을 거쳤고, 2003년부터는 독일의 일급 오페라극장인 함부르크 슈타츠오퍼의 음악감독으로 활약 중이다.



Arthaus DVD 101 495
[2DVDs]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마를린 하르텔리우스(피오르딜리지)/ 안나 보니타티부스(도라벨라)/ 하비에르 카메라나(페란도)/
구벤 드롤(구글리엘모)/ 마르티나 안코바(데스피나)/ 올리버 빌트머(돈알폰소)/
프란츠 벨저-뫼스트(지휘)/ 취리히 오페라

프란츠 벨저-뫼스트가 지휘한 모차르트의 가장 매력적인 오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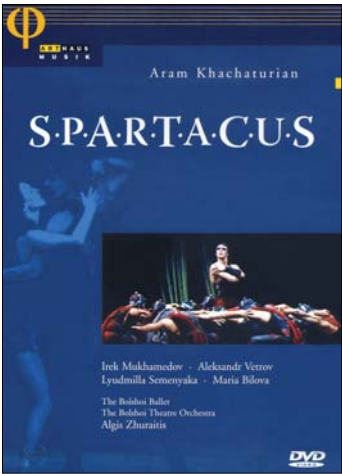
‘여자는 다 그래’라고 번역되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부파 ‘코지 판 투테’는 다 폰테 삼부작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완성된 작품이다. 스와핑을 연상케 하는 다소 비윤리적인 내용과 여성 전체에 대한 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많은 후대인들로부터 비판받기도 했던 작품이지만, 음악적인 아름다움에서만큼은 모차르트의 모든 오페라들 중에서도 가장 상위권을 다룬만한 매력적인 걸작이다. 본 영상은 2009년 취리히 오페라하우스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차기 빈 슈타츠오퍼의 음악감독으로 취임예정인 프란츠 벨저-뫼스트의 명석한 지휘와 관록의 모차르트 히로인 말린 하르텔리우스, 최근 급성장세의 메조 안나 보니타티부스, 바스티유의 ‘몽유병의 여인’에서 드세이의 상대역으로 호평을 받았던 미성의 테너 하비에르 카마레나, 취리히 오페라의 새로운 스타로 인기몰이 중인 루벤 드롤로 구성된 주역가수들의 뛰어난 앙상블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바그너와 현대오페라 쪽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던 독일 출신의 명연출가 스벤 에릭 베흐톨프는 간결한 무대와 절제된 연기를 통해 이 작품의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보다 돋보이게 만든다.

【보조자료】

○ 〈코지 판 투테〉는 여성의 정조를 믿지 않는 철학자 돈 알폰소가 자매를 사랑하는 두 남자를 꼬드겨 여인들의 사랑을 테스트해보는 내용이다. 두 남자는 변장한 채 서로 상대방의 연인에게 접근한다. 자매는 정조를 지키는 듯 했지만, 결국 새로운 남성들의 애정공세에 무너지고 만다. 자매는 새로운 연인들과 결혼서약까지 하고 말지만, 이내 두 남자는 정체를 드러내고 여인들은 당황해한다. 상황은 열렁뚱방 마무리되지만, 이들 커플들의 앞날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 스벤 에릭 베흐톨프는 독일의 배우 겸 연출가로 빈의 부르크테아터의 주요멤버이기도 하다. 다름슈타트 출신의 그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후 취리히, 보훔, 함부르크 등지에서 배우로 각광받았다. 1999년부터 빈 부르크테아터에 합류하였고,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고정적으로 출연하였다. 2000년 취리히 오페라에서 베르크의 오페라 〈롤루〉로 오페라연출 데뷔를 한 이래, 바그너와 현대오페라 분야에서 개성적인 연출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빈 국립오페라 무대에 올렸던 R 슈트라우스의 〈아라벨라〉와 바그너의 링 사이클로 주목받았다.

○ 오스트리아 린츠 출신의 지휘자 프란츠 벨저-뫼스트는 1990년 런던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로 임명되면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취리히 오페라의 음악감독과 음악총감독을 맡았으며, 2002년부터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벨저-뫼스트는 세이지 오자와와의 후임으로 2010년 후반기부터 빈 국립오페라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Arthaus DVD 101 115

하차투리안: 스파르타쿠스

이렉 무하메도프(스파르타쿠스)/ 류드밀라 세멘카야(프리기아)/ 알렉산드르 베트로프(크라수스) 외
볼쇼이 발레단/ 알지스 주라이트스(지휘)/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스파르타쿠스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주는 감동의 영상물

〈가안느〉와 더불어 아람 하차투리안의 양대 발레걸작으로 꼽히는 〈스파르타쿠스〉는 기원전 1세기 로마제국에 맞서 일어났던 노예반란의 지도자였던 검투사 스파르타쿠스의 이야기를 남성중심의 역동적인 발레로 표현한 것이다. 1954년에 완성된 이 발레의 음악은 작곡가에게 레닌상의 영예를 안겨주었고, 발레 초연은 1956년 레오니드 야콥슨의 안무로 키로프발레단에 의해 이뤄졌다. 이 발레가 전 세계적인 화제작으로 거듭난 것은 1968년 볼쇼이 발레단을 위한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안무가 열렬한 갈채를 받게 되면서부터다. 1990년에 녹화된 본 DVD는 바로 볼쇼이 발레단에 의한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안무를 담고 있다. 볼쇼이 발레단은 원조다운 자긍심으로 근육질의 발레리노들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중심이 되는 이 작품의 참맛을 제대로 전달해준다. 특히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총애를 받으며 역대 최연소로 스파르타쿠스 역을 맡으며 볼쇼이 최고의 히어로로 각광받았던 이렉 무하메도프와 8/90년대 볼쇼이의 주역 발레리노로 활약하면서 러시아의 인민예술가 타이틀을 획득했던 알렉산드르 베트로프의 카리스마 대결이 눈부시다.

[보조자료]

○ 발레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쟁포로인 스파르타쿠스와 프리지아 부부는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별하게 된다. 프리지아는 로마 장군 크라수스에게 팔려가고 검투사가 된 스파르타쿠스는 어쩔 수 없이 동료들을 죽이게 된다. 스파르타쿠스는 크라수스의 집에 잠입하여 프리지아를 구출하고 크라수스와 일대일의 대결을 벌여 승리하지만, 그의 목숨을 살려준다. 크라수스는 다시 군대를 모아 반란군을 토벌하고자 한다. 크라수스의 연인인 애기나의 모략으로 반란군은 내분에 빠지고 그 결과 로마군에게 패퇴하게 된다. 스파르타쿠스 역시 로마군들의 창에 찔려 전사하고 남편의 주검을 보며 프리지아는 오열한다.

○ 스파르타쿠스를 맡은 이렉 무하메도프는 1960년 타타르의 카잔에서 태어났다. 1981년 모스크바 국제 발레콩쿠르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 직후 모스크바 볼쇼이 발레단의 주역무용수로 초빙되었으며, 그곳에서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가장 아끼는 무용수이자 역대 최연소로 스파르타쿠스 역을 맡은 발레리노로 화제를 모았다. 1990년부터는 영국 로알 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도 맹활약하였다.



Arthaus DVD 102 099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의 킬리안 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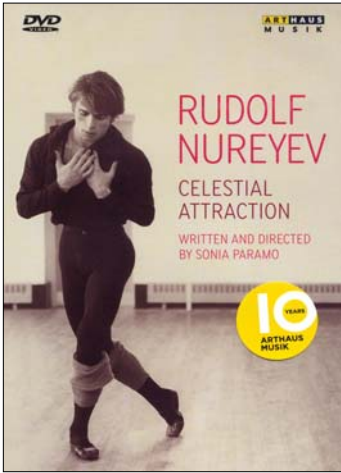
천재 안무가 지리 킬리안의 영상자료 중 가장 최신의 작품들

체코 프라하 출신의 안무가 지리 킬리안(1947~)은 1975년 불과 28세의 나이에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의 예술감독이 되었고 1999년까지 장기집권하며 이 무용단을 현대무용의 메카로 끌어 올렸다. 자발적 의사로 퇴임한 이후에도 이 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안무가로 첫 손에 꼽히고 있다. 그의 영상물은 이미 여럿 출시되어 있지만 이 DVD가 가장 최신작들을 다루고 있다. 〈벨라 피구라〉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다. 루카스 포스의 현대음악과 페르골레지, 비발디의 바로크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남녀 무용수들은 상체를 드러내며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슬립리스〉는 킬리안이 어린 무용수들을 위해 만든 작품이다. 인간 내면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건드린 것으로서 모차르트 음악을 현대적으로 편곡하여 사용한다. 〈생일〉은 앞 작품과 반대로 정규단원에서 물러난 나이 든 무용수들을 위해 만든 것이다. 모차르트 시대의 가발을 뒤집어 쓴 무용수들이 모차르트 음악에 맞춰 킬리안의 기발한 상상력과 유머를 맘껏 발휘한다. 영화광이기도 한 킬리안의 특징이 발휘되어 영상매체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루돌프 누레예프: 천상의 매혹

무용의 전설이 된 이름, 루돌프 누레예프에 대한 새 다큐멘터리

루돌프 누레예프(1938~1993)는 20세기 발레의 전설이다. 시베리아 대륙횡단열차에서 태어났으며 부친은 타타르 혈통의 레드 아미 정치장교였다. 우랄 산맥 기슭의 시골 우파에서 민속무용을 배우던 이 가난한 소년은 놀라운 재능으로 레닌그라드의 바가노바 발레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으며, 출발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여 학교를 마치고 키로프 발레에 입학하자마자 당대 최고의 스타 나탈리아 두딘스카야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러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분방한 성격으로 극장 고위층과 갈등을 일으키다가 1961년 파리 공연 도중에 서구로 망명한다. 이후 누레예프는 로열 발레를 위시한 전세계 발레단에서 발레리노의 새로운 가능성을 과시한 것은 물론 철의 장막에 가려있었던 러시아 정통발레를 서구에 소개하는데도 일등 공신이 되었다. 이 영상물은 독특한 외모, 놀라운 속도감, 표범처럼 정교하고 우아한 움직임을 자랑하여 온갖 찬사의 대상이었으며, 안무가로서도 특히 파리 오페라 발레에 잇을 수 없는 족적을 남긴 누레예프의 불꽃 튀는 삶을 그가 에이즈로 죽은 지 17년 만에 다시 돌아본다. 이전의 다큐에 수록되지 않았던 희귀자료는 물론 그의 자취를 다시 찾아간 새로운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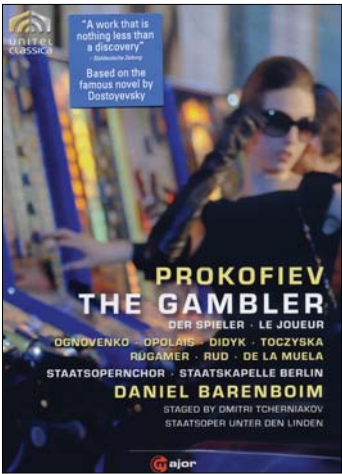


Arthaus DVD 101 491



C Major Entertainment DVD

www.cmajor-entertainment.com



C-Major 701708

프로코피에프 : 도박사 (The Gambler)

미샤 디덕(알렉세이)/ 크리슈틴 오폴라이스(폴리나)/ 블라디미르 오고노벤코(장군) 외
다니엘 바렌보임/ 베를린 슈타츠오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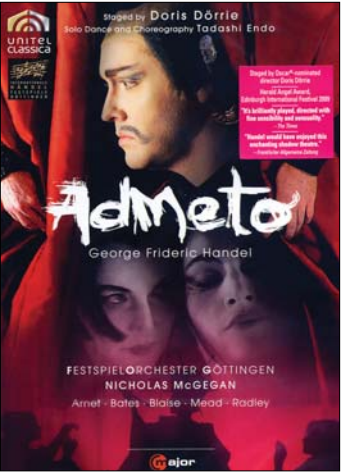
돈의 노예가 된 가련한 인간 군상을 그린 프로코피에프의 도박 오페라

'도박사'는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동명소설을 기반으로 프로코피에프가 완성한 4막 오페라다. 프로코피에프는 돈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도박판에 투영된 인간의 헛된 욕망과 낙약함을 음울하게 그린 원작소설의 내용을 강렬한 음악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려내었다. 1966년 러시아에서 오페라영화로 제작된 흑백필름이 DVD로 출시된 적이 있지만, 오페라 공연실황으로는 2008년 3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에서의 프로덕션을 담은 이 영상물이 최조다. 현재 마린스크극장의 무대감독으로 활약 중인 촉망받는 젊은 연출가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는 현대적이면서도 사실적인 무대 위에서 가수들의 자연스런 연기를 이끌어내었으며, 러시아 출신의 일급 가수들이 중용된 출연진 역시 연기와 노래 양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다. 거장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끄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는 청년기 프로코피에프의 야성적인 음악세계를 충실히 전달해준다. 그리고 벨리니 쿡쿠르, 프란시스카 쿠파르트 쿡쿠르, 발레시아 무지카 쿡쿠르에서 연속 우승한 이후 라 스칼라와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에서 활약 중인 테너 김기현 이 4막 카지노장면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등장한다.

[보조자료]

○ 도박중독 상태로 항상 빛에 쫓들렸던 도스토예프스키는 짧은 시간 안에 소설을 완성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저작권을 한 출판사에 넘겨줄 위기에 처하였다. 그는 도박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폴리나 수슬로바라는 여인(소설의 여주인공 이름도 폴리나다)과의 연애편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이 소설을 탈고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였다. 달리 출세의 기회가 없던 19세기 러시아의 민중들은 도박판에서 자신의 운을 시험했었고, 이로 인해 도박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도박에 투영된 인간의 헛된 욕망과 인관관계마저 좌지우지하는 배금주의를 이 소설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 연출가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는 1970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 러시아 무대예술 아카데미를 졸업한 이후 연출은 물론 무대 미술과 의상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면서 러시아 공연계의 기대주로 각광받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황금 마스크상을 무려 4회(2002, 2004, 2005, 2008)나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극장의 무대감독과 무대 및 의상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며, 차이코프스키의 에프게니 오네긴(볼쇼이극장), 무소륵스키의 보리스 고두노프(베를린 슈타츠오퍼)와 호반사치나(바이에른 슈타츠오퍼),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마린스키극장)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C-Major 702008 [2 DVDs]

헨델: 아드메토

팀 미드(아드메토)/ 마리 아네트(알체스테)/ 커스틴 블레이즈(안티고나)/ 윌리엄 버거(에르콜) 외/
니콜라스 맥게간(지휘)/ 괴팅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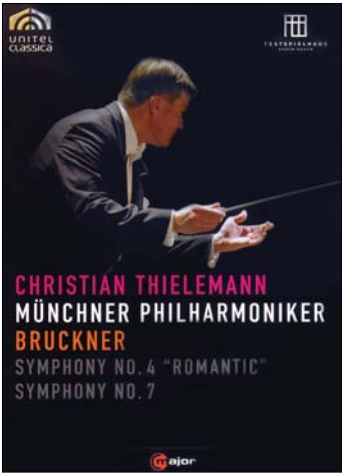
일본 괴기 역사극으로 재탄생한 헨델의 걸작 오페라

'테살리아의 왕, 아드메토'는 헨델의 창작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무렵에 완성된 3막 오페라로, 18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오페라걸작으로 손꼽힌다. 1727년에 이 오페라의 초연무대는 당대 최고의 프리마돈나들인 프란체스카 쿠초니와 파우스티나 보르도니, 그리고 인기절정의 카스트라토였던 세네시노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었다. 영화 '파니 핑크'로 잘 알려진 독일의 여류 영화감독 도리스 되리는 고대 그리스 테살리아의 왕 아드메토와 그를 둘러싼 두 여인 알체스테와 안티고나의 엇갈린 사랑을 다룬 이 오페라를 한편의 그로테스크한 일본 역사극으로 완전히 바꿔놓았다. 일본 전국시대 풍의 분장과 의상 외에도 일본색이 완연한 각종 무대장치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전위무용가 타다시 엔도와 그의 동료들이 온몸으로 표현해내는 각종 동물들과 원구들도 흥미롭다. 공포영화 '링'의 사다코를 연상케 하는 섬뜩한 모습으로 '질투'를 의인화시켜놓은 연출도 인상적이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헨델 극음악 스페셜리스트인 니콜라스 맥게간이 이 프로덕션의 높은 음악적 완성도를 보장해준다.

[보조자료]

○ '아드메토'는 '라다미스토', '줄리오 체사레', '타메를라노', '로멜린다', '알레산드로'와 더불어 헨델이 왕립 음악 아카데미를 위해 완성했던 일련의 오페라들인 이른바 '런던 오페라' 시리즈에 속하는 작품이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알체스티스'의 내용을 토대로 아우렐리오 아우렐리오와 오르테시오 마우로가 완성한 리브레토를 사용하였다. 현재의 아내와 이뤄지지 못했던 첫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테살리의 왕 아드메토, 남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알체스테, 아드메토의 명령으로 지옥에서 알체스테를 구해오는 헤라클레스의 무용담, 첫 사랑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트로이의 공주 안티고나, 질투에 눈이 멀어 형 아드메토를 암살하고자 하는 트라시메데 등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뒤얹혀있으며, 어느 바로크 오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여곡절 끝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 도리스 되리는 영화 '파니 핑크'를 비롯한 로맨틱 코미디물로 명성을 얻었던 독일의 여류 영화 감독이다. 2001년 베를린 슈타츠오퍼에서 모차르트의 '코지 판 투테'로 처음 오페라 연출에 입문한 이후, 컬러풀한 미장센을 강조한 개성적인 무대와 재기 넘치는 연출로 오페라 연출가로도 크게 호평을 받고 있다. 되리는 특히 극동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신의 지대한 관심을 적극 반영했던 '투란도트'(2003년 베를린 슈타츠오퍼)와 '나비부인'(2005년 바이에른 슈타츠오퍼)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09년 괴팅겐 헨델 페스티벌을 통해 처음 공개된 이 '아드메토' 역시 일본의 역사극을 방불케 하는 이국적인 연출로 큰 화제를 낳았으며, 이후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의 리바이벌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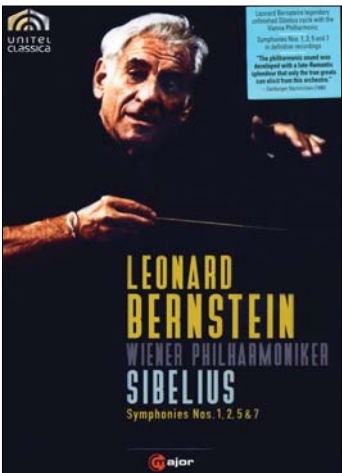
C-Major 701908

브루크너 : 교향곡 4번, 7번

크리스티안 틸레만/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게르만 마에스트로 계보의 계승자 틸레만의 브루크너 교향곡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현재 독일어권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휘자다. 카라얀 이후 정통 게르만계 마에스트로에 목말라했던 수많은 이들의 갈증을 말끔히 해결해줄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뮌헨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로 활동 중인 그는 바그네리언들의 성자인 바이로이트에서도 음악고문 직책을 맡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를 이끌 예정이다. 본 DVD는 그가 지휘한 브루크너의 교향곡 2편을 담고 있다. 교향곡 4번 '로맨틱'과 교향곡 7번은 브루크너가 남긴 열한편의 교향곡들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걸작들이다. 틸레만은 거대한 고딕대성당과 같은 이 작품들의 위용을 큰 스케일과 여유로운 흐름으로 당당하게 펼쳐나간다. 뮌헨 필 역시 과거 첼리비다케의 수하에서 일급 브루크너 악단으로 조련 받았던 악단답게 장쾌한 사운드로 틸레만의 지휘를 뒷받침하였다. 2006년(7번)과 2008년(4번) 독일 바덴-바덴의 페슈트필하우스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들로 화질과 음질 양쪽 모두에서 큰 만족감을 안겨줄 것이다.



C-Major 702208 [2 DVDs]

시벨리우스: 교향곡 1,2,5,7번

레너드 번스타인/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번스타인의 미완성 시벨리우스 사이클 드디어 DVD로 등장하다.

번스타인 마니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값진 영상이 드디어 DVD로 발매되었다. 번스타인은 1980년대 후반 빈 필하모닉과 더불어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전집에 착수했었다. 1986년 교향곡 2번을 시작으로 매년 한 작품씩 무지크페라인 홀에서 콘서트실황으로 진행될 계획이었으며, DG와 Unittel에서 각각 CD와 영상물로 출판되었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1990년 2월 교향곡 1번의 녹화가 완료된 이후 더 이상 이 사이클은 진행되지 못했다. 그해 10월 14일 72세를 일기로 번스타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시벨리우스의 일곱 교향곡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들인 1,2,5,7번의 녹음이 완료되었었다는 점이다. 번스타인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빈 필의 비단결 같은 소노리티가 조화를 이룬 이 미완성의 시벨리우스 사이클은 음반으로서도 크게 호평을 받았던 번스타인 만년의 역작이었다. 그 감동이 이제 DVD를 통해서 또 다시 우리 곁으로 생생하게 찾아 올 것이다. 번스타인의 팬들은 물론, 시벨리우스 애호가들이라면 반드시 갖춰야할 필수아이템으로 적극 추천한다.



Dynamic DVD

www.dynamic.it



Dynamic 33642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친치아 포르테가 선사하는 정통 리리코 콜로라추라의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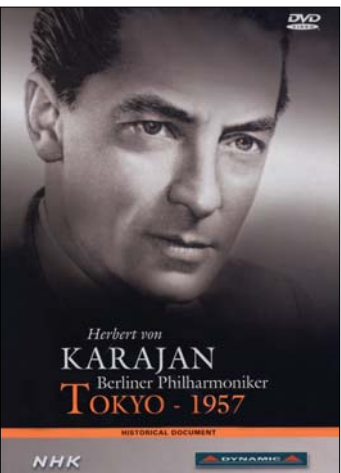
오페라와 그 가수에 대한 관점도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어서 비올레타 역은 정통 콜로라추라 소프라노를 위한 레퍼토리라는 인식으로부터 조금 무거운 소프라노가 더 극적인 감동을 선사한다는 시각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마리아 칼라스가 그 출발이었고 오늘날에는 칼라스보다 덜 무겁지만 안젤라 게오르규, 안나 네트렙코 등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 여기, 이탈리아의 새로운 스타 친치아 포르테가 전통회귀적인 관점에서 비올레타에 도전한다. 그녀의 비올레타는 1950년대의 명가수들을 연상시키는 고전적인 것으로서, 조금 고색창연한 스타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비올레타에 손색이 없는 우아한 외모와 훌륭한 연기로 이런 문제를 극복한다. 정통 리리코 소프라노가 선사하는 비올레타의 감동이 어떤 것인지 실감할 수 있는 명연이다. 상대역 알프레도를 부르는 사이미르 피르구는 알바니아 출신으로 유럽정상권의 정통 리리코 테너로 꼽힌다. 벨기에의 남부의 프랑스어 사용 지역인 왈로니의 아름다운 왕립 오페라에서 열린 2009년 3월의 최신 실황이다. 벨칸토 오페라의 스페셜리스트 파울로 아리바베니가 지휘를 맡았고 통신사업가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의 스테파노 마초니스 디 프랄라페라가 어두운 미감에 휩싸인 분위기로 연출을 이끌었다.

카라얀과 베를린 필의 전설적인 1957년 도쿄 콘서트 실황

바그너: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1막 전주곡, R 슈트라우스: 돈 환, 베토벤: 교향곡 5번

카라얀 마니아들을 위한 특별한 영상

클래식 음악계의 영원한 아이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위대한 지휘자가 보여줬던 음악 혼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카라얀 마니아들을 위한 특별한 영상 하나가 발굴되었다. 1957년 11월 3일 도쿄의 구 NHK홀에서 있었던 베를린 필의 역사적인 일본 공연실황이 DVD로 선보인 것이다. 당시 카라얀과 베를린 필은 바그너의 마이스터징거 1막 전주곡, R 슈트라우스의 돈 환,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라는 자신을 최고의 레퍼토리들로 일본 관객들을 열광케 만들었었다. NHK에서 기록했던 본 콘서트의 실황은 열악한 흑백화질에도 불구하고 당시 카라얀과 베를린 필이 만들어내었던 혼신의 열연을 감동적으로 전달해준다. 아쉬운 화질에 비해 LPCM 2.0채널로 제공되는 사운드는 준수하다.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의 초반부의 경우 원본필름의 훼손으로 인해 영상과 사운드가 고정화면과 모노로 대체되는 부분이 나타나지만, 40대 후반 카라얀의 기백과 미헬 슈발베, 오렐 니콜레, 에버하르트 핑케, 마르틴 칠러 등의 베를린 필의 전설적인 면면들을 확인시켜주는 이 영상의 소중함은 변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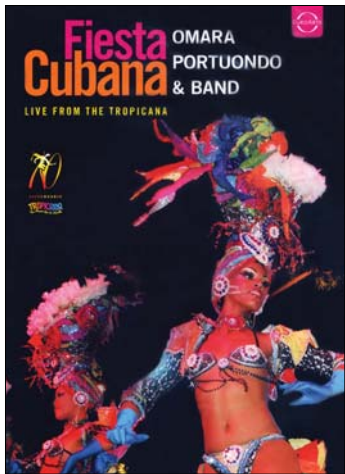


Dynamic 33644



EuroArts DVD

www.euroarts.com



EuroArts DVD 2058028

“쿠바의 목소리”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디바 오마라 포르투온도

– 트로피카나 (Tropicana) 실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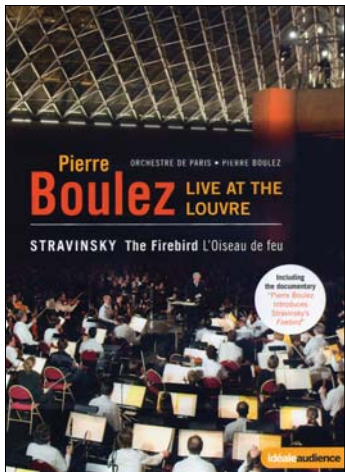
오마라 포르투온도의 감동적인 무대와 쿠바 최고의 클럽 트로피카나의 화려한 쇼

2009년, 쿠바 최고의 명소 중 하나인 트로피카나 클럽에서 가진 오마라 포르투온도의 실황 무대. “쿠바의 목소리”로 불리는 오마라 포르투온도의 따뜻한 감동이 흐르는 무대와,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트로피카나 클럽의 쇼를 함께 만날 수 있다. ‘Dos Gardenias(두 송이의 치자꽃)’, ‘Guantanamera(관따나메라)’, ‘Veinte Anos(20년)’ 등 잊지 못할 명곡들을 노래하는 노대가의 숨결과, 아바나 최고 클럽의 공연이 너무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보너스 트랙: 오마라 포르투온도 인터뷰, 트로피카나 아크로바틱 공연

[2개의 보너스 트랙]

메인 트랙들 못지않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어린 시절 트로피카나의 멤버로 발탁되어 춤을 추고 노래했던 추억과 음악 인생을 되돌아보는 인터뷰와 함께, 메인 트랙에 담지 못한 같은 날의 무대를 ‘Gracias(고마워요)’, ‘Drume Negrita(잘 자라, 흑인 아가씨)’ ‘Veinte Anos(20년)’ 등의 명곡으로 만날 수 있다. 트로피카나 공연 중 아크로바틱 곡에 장면을 담은 또 하나의 보너스 트랙도 흥미를 더한다.



Ideal Audience DVD 3078628

스트라빈스키: 발레 ‘불새’ 전곡 (1910년 오리지널버전), 불꽃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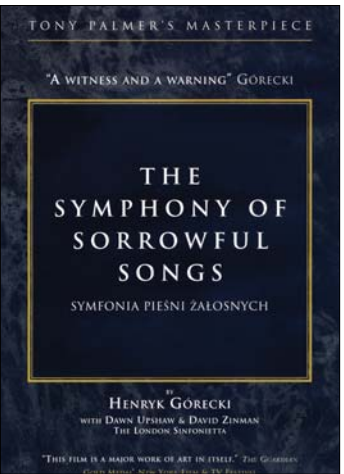
피에르 볼레즈/ 파리 오케스트라

스트라빈스키의 걸작 발레 ‘불새’에 대한 볼레즈의 친절한 가이드북

‘불새’는 ‘봄의 제전’, ‘페트루슈카’와 더불어 스트라빈스키의 걸작 발레 3부작으로 손꼽힌다. 림스 카-코르사코프의 문하에서 체득했던 러시아의 민족주의적인 색채와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에 자신 속에 내재했던 강렬한 원시의 리듬을 멋지게 접목시켰던 이 걸작은 이후 관현악모음곡 형태로도 큰 인기를 누렸다. 작곡과 지휘 양 분야 모두에서 이 시대 최고의 거장으로 존경받고 있는 피에르 볼레즈가 이 DVD를 통해 스트라빈스키의 걸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2008년 12월 2일 루브르 박물관의 새로운 상징물인 유리 피라미드 지하의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던 ‘불새’ 전곡과 ‘불꽃놀이’의 콘서트 실황과 더불어 그 전날 살레 플레엘에서 있었던 ‘불새’에 관한 레쳐콘서트를 담은 5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보너스로 함께 제공된다. 스트라빈스키와 직접적인 교감을 나누었던 볼레즈는 현대음악에 대한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적절히 동원하여 이 걸작의 구성구석을 알기 쉽게 해부해나가며, 파리 오케스트라 역시 건실한 연주로 노거장의 노고를 든든히 뒷받침하였다. 그동안 관현악 모음곡버전에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이 걸작발레의 진면목을 이 DVD를 통해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Tony Palmer’s Film DVD

www.tonypalmerdv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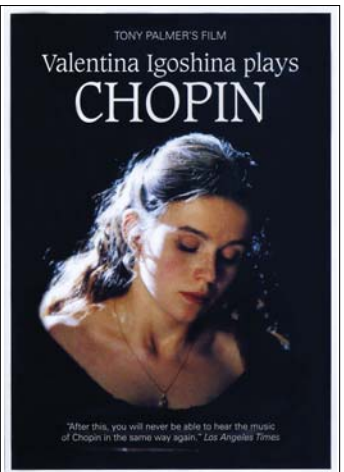


Tony Palmer TP-DVD102

구레츠카: 다큐멘터리 〈슬픔의 교향곡〉

20세기에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슬픔의 교향곡’에 대한 다큐멘터리

현대 음악 중에도 많은 명곡이 있지만 그중 인간 내면의 슬픈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려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곡은 폴란드의 헨릭 구레츠카가 작곡한 교향곡 제3번, 일명 ‘슬픔의 교향곡’일 것이다. 1977년에 초연되었으며 데이비드 진만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던 업쇼가 독창자로 나선 1번서 치 레이블 음반은 1992년 영국 클래식 음반 차트에서 무려 26주 동안 1위를 차지하면서 100만장 가까이 판매되는 기적을 창조했다. 클래식 다큐의 일인자 토니 팔머가 연출한 이 영상물은 구레츠카를 직접 인터뷰하고 데이비드 진만과 던 업쇼가 연주한 영상, 그리고 충격적인 인류의 비극을 담은 필름자료를 통하여 그 감동을 날날이 해부한다. 폴란드에 전해진 가톨릭 성가와 민요 선율을 사 용한 이 곡은 교향곡이면서도 세 개의 악장 모두 소프라노가 노래한다. 특히 그 가사가 너무도 감동적이다. 1악장은 수도원에 전승된 ‘성스런 십자가 탄식 기도문’으로 예수가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성모 마리아의 심정을 노래한다. 2악장은 아우슈비츠에 갇혔던 18세의 유대인 소녀가 가스실로 끌려가기 직전에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벽에 갈긴 낙서를 가사로 삼았다. 3악장은 주변국으로부터의 수많은 침략 전쟁에서 죽어간 젊은이를 아들로 둔 어머니의 원망과 탄식이 담겼다.



Tony Palmer TP-DVD161

발렌티나 이고시나가 연주하는 쇼팽

미모의 피아니스트 발렌티나 이고시나가 연주하는 쇼팽의 대표 피아노곡들

쇼팽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본 DVD는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발렌티나 이고시나가 연주하는 쇼팽의 대표 피아노작품들을 담고 있다. 1978년 러시아 브리얀스크에서 태어난 이고시나는 1993년 14세의 나이로 폴란드 루빈스타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1997년에는 모스크바 라흐마니노프 콩쿠르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2008년 워너 레이블을 통해 출시한 쇼팽의 왈츠 전곡 음반은 Classic FM지에서 이달의 음반에 선정되면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쇼팽 스페셜리스트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그는 토니 팔머가 제작한 라흐마니노프 관련 다큐멘터리인 ‘Harvest of Sorrow’와 쇼팽 관련 음악영화인 ‘The Strange Case of Delfina Potocka’의 음악을 맡기도 했는데, 본 DVD는 바로 후자에 사용되었던 쇼팽의 대표 피아노작품들을 리사이틀 형태로 다시 녹화한 것이다. ‘즉흥환상곡’, ‘이별곡’, ‘빗방울 전주곡’, ‘흑건’, 스케르초 1번, 왈츠 1번과 6번, ‘영웅 폴로네이즈’, 녹턴 13번, 소나타 2번 3악장 등 작곡가의 가장 대중적인 작품들을 엄선하였다.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코드링 (40초)

코드링 (60초)

Rodgers: Do-Re-Mi (도레미 송)	##7168011	##7268011
Bernstein: West Side Story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7168040	##7268040
Chabrier: Espana (에스파냐)	##7168012	##7268012
Verdi: La Traviata - Drinking Song (축배의 노래)	##7168013	##7268013
Brahms: Cradle Song (자장가)	##7168014	##7268014
Paganini: La Campanella (라 캄파넬라)	##7168015	##7268015
Piazzolla: Libertango (리베르탱고)	##7168016	##7268016
Offenbach: Can-Can (캉캉)	##7168017	##7268017
Strayhorn: Take the 'A' Train	##7168018	##7268018
Caravan	##7168019	##7268019
Un bel di vedremo (어느 개인 날)	##7168020	##7268020
Anderson: Blue Tango (블루탱고)	##7168021	##7268021
Anderson: Belle of the Ball	##7168022	##7268022
Anderson: Chicken Reel	##7168023	##7268023
Fiddle-Fiddle	##7168024	##7268024
Sleeping Beauty: Waltz (잠자는 숲속의 공주:왈츠)	##7168025	##7268025
Swan Lake: Waltz (백조의 호수: 왈츠)	##7168026	##7268026
The Nutcracker: March (호두까기인형: 행진곡)	##7168027	##7268027
The Nutcracker: Dance of the Sugar Plum Fairies (호두까기 인형: 사탕요정의 춤)	##7168028	##7268028
The Nutcracker: Chinese Dance (호두까기 인형: 중국인형의 춤)	##7168029	##7268029

이용방법 (How to use) >>

곡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선택
예) 도레미 송 60초 컬러링 이용방법
##7268011 + 통화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40초 - 1,200원 | 60초 - 1,300원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일반 코드링 (40초)

롱 코드링 (60초)

Vivaldi: The 4 Seasons Violin Concerto Op.8 No.3 Autumn - I. Allegro	##7170133	##7270133
Bolling: Baroque And Blue	##7170134	##7270134
Bolling: Javanaise	##7170135	##7270135
Bolling: Irlandaise	##7170136	##7270136
Bolling: Amoureuse	##7170137	##7270137
Bolling: Jazzy	##7170138	##7270138
Garnier: Misty	##7170139	##7270139
Albeniz: Suite Espanola No.1 Op.47 - Cuba (스페인 모음곡 1번 - 쿠바)	##7170140	##7270140
Berlin: I'll see you in Cuba	##7170141	##7270141
Damare: Le Merle Blanc Op.161 (다마레: 하얀 티티새)	##7170142	##7270142
Faure: Berceuse Op.16 (포레: 자장가)	##7170143	##7270143
Piazzolla: Histoire Du Tango - Bordel 1900 (탱고의 역사 - 선술집)	##7170144	##7270144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667 'Trout' - Theme with Variations - Allegro Giusto	##7170145	##7270145
Over The Rainbow	##7170146	##7270146
We'll Meet Again	##7170147	##7270147
La Mer	##7170148	##7270148
Williams: Star Wars - Main Title	##7170149	##7270149
Mr. Lee	##7170150	##7270150
Feaster: Sh-Boom	##7170151	##7270151
Berry: Maybelline	##7170152	##7270152

이용방법 (How to use) >>

곡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 선택
예) '다마레: 하얀 티티새' 롱 컬러링(60초) 이용방법
##7270142 + 통화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SK Telecom 이용고객에 한하여 사용가능.

40초 - 1,200원
60초 - 1,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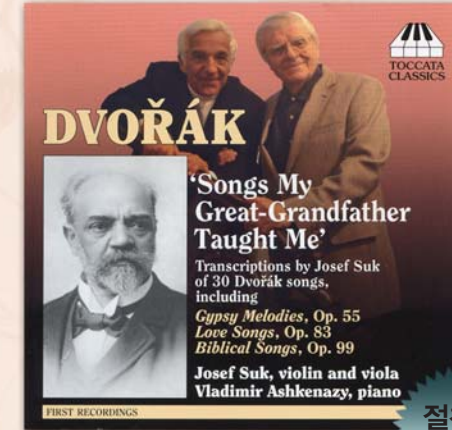


www.toccataclassics.com



“나의 증조부가 가르쳐 준 노래들”

- 드보르작 가곡 편곡 -



절찬리
판매중

TOCC0100

요제프 수크 violin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piano

요제프 수크와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라는 최고의 거장들의 만남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주목받기에 충분한 음반이다. 음반의 타이틀이 말해주듯 드보르작의 감성적인 가곡 30편을 그의 외증손자인 요제프 수크가 바이올린과 피아노 이중주로 편곡하여 연주하였다. '어머니가 가르쳐 준 노래', 자장가, 10편의 성서적인 노래들, 8편의 연가 등 드보르작의 대표 가곡들이 로맨틱한 선율의 바이올린 소품들로 재탄생하였다.



표지사진
멜로디스(Melodies)

〈아울로스뉴스〉 2010년 5월호

통권 제 43호 발행 : 2010년 6월 4일

발행인 : 임용욱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